

I. 經濟・社會 環境變化

1. 巨視經濟展望

가. 國內經濟

(1) 經濟成長

- '97년도 國內經濟는 계속적인 景氣萎縮으로 6.0%~6.5%의 낮은 성장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며, '97년 하반기 중 경기 하강국면을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 성장율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景氣萎縮의 主要因인 國際交易條件의 惡化가 '97년 하반기부터 호전됨에 따라 경기회복세가 나타날 것이지만, 잠재성장율의 하락과 국내경제의 高費用・低效率 구조로 인해 급속한 경기상승을 시현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96년 중 크게 둔화된 總固定投資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設備投資 및 민간건설투자가 不進하여 전체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며,
- 民間消費支出에 있어서는 경기둔화와 고용불안정성 증대,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등 저축유인 정책, 高費用構造 개선을 위한 기업의 경상비용지출 억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소비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며,
- 政府消費支出은 방위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經常費用 支出抑制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대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며,

- '96년의 사상최대 적자를 유발한 交易條件 惡化가 다소 개선되어 무역수지적자 폭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회복세를 보이지는 않아 무역적자가 통관기준으로 110억~170억 달러로 예상됨.

(2) 失業率

- 景氣萎縮 및 과거 종신고용제의 와해로 失業率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 OECD 가입에 따른 整理解雇制 및 年俸契約制등의 도입은 노동시장이 市場原理에 의해 운영됨을 의미함.
- 따라서 과거의 실업을 패턴과 달리 경기위축으로 인한 失業率 增加現狀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3) 物價

- '97년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져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둔화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景氣下降 및 賃金上昇率 下落 등에 따른 소비수요의 감소와 함께 농산물수입증가에 따른 가격상승폭 하락, 부동산가격 안정,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원화 平價切下에 따른 수입품가격의 상승, 해외 자본 유입의 증대 등의 요인으로 그 둔화폭이 적을 전망이다.

- '97년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임금상승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I -1> '97年度 巨視經濟 展望

(단위 : %)

구 분	KDI	KIET	금융 연구원	현 대	대 우	LG	쌍 용
G D P 성 장 율	6.5	6.4	6.3	6.7	6.0	6.3	6.3
최종소비지출		5.9	6.1		6.0	5.9	6.3
민간소비지출	6.9	6.2	6.6	6.8	6.2	6.4	6.7
총 고정 자본 형성	4.8	6.0	5.3		5.9	3.5	6.0
건설투자		5.9	6.2		8.9	6.5	7.5
설비투자	2.1	5.4	4.1	4.0	1.9	-0.4	3.9
수 출 (억\$)	1,424	1,413	1,436	1,446	1,437	1,424	1,400
수 입 (억\$)	1,489	1,588	1,553	1,608	1,604	1,553	1,548
경 상 수 지 (억\$)	-132	-174	-167	-170	-152	-161	-158
소비자 물가상승률	4.3	4.5	4.3	4.5	4.6	4.5	4.9
생산자 물가상승률		2.4	2.1		2.5	2.4	3.3
시 장 금 리 ¹⁾	11.2		10.8	11.0	-	10.3	12.0
원 / 달러 환 율			821		-	837	841
실 업 율			2.7		2.3	2.5	2.5

주 : 1) 회사채 수익율 기준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KDI경제전망』, 1996 3/4.

산업연구원, 『96/97 분기별 경제전망』, 1996. 10.

한국금융연구원, 『향후 1년간의 경제전망』, 1996. 10.

현대경제사회연구소, 『'97년 경제전망』, 1996. 10.

대우경제연구소, 『분기별 국내경제전망: 1996.3/4~1997.4/4』.

LG경제연구원, 『경제전망』, Vol. 26, 1996. 9.

쌍용경제연구소, 『'97 경제전망과 기업경영환경』, 1996. 9.

(4) 金利 및 換率

- '97년 중 금리는 경기하강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율의 감소, 상대적인 물가안정, 金融市場 開放에 따른 해외자금조달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95년 연간 13.9%, '96년 11.8%의 수준을 기록한 금리는 '97년 중 10.5%~12.0% 수준에서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金利安定을 威脅하는 불안요인으로 大選을 앞둔 자금시장의 불안정성,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불안정성, 경기하강 지속시의 운전자금 수요, 民資에 의한 社會間接資本 투자에 따른 자금수요 등이 상존함.
- '97년 연중 대미달러 換率은 820~840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나. 國際經濟

(1) 經濟成長

- 世界經濟는 '96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97년에는 유럽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등 先進國 經濟의 성장세 지속과 개도국의 성장세 회복으로 3.5%~4.0%대의 견실한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I -2> 主要國의 經濟成長率 展望

(GDP기준, %)

국 별	'96			'97		
	WEFA	IMF	OECD	WEFA	IMF	OECD
세계	3.3	3.8	3.8	3.9	4.1	4.3
선진국	2.2	2.3	2.0	2.4	2.5	2.6
미국	2.2	2.4	1.8	2.4	2.3	2.2
일본	3.8	3.5	2.7	2.2	2.7	3.1
독일	0.8	1.3	1.0	2.1	2.4	2.9
영국	2.2	-	2.2	3.5	-	2.7
개도국	-	6.3	-	-	6.2	-
태평양연안국	7.2	-	-	7.1	-	-
아시아	-	-	-	-	-	-
중국	9.3	-	-	9.4	-	-
중남미	2.9	-	-	4.9	-	-
시장경제전환국	-	0.4	-		4.0	-

주 : 태평양연안국은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을 포함.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6.8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6. 6.

- 美國經濟의 성장세는 다소 鈍化될 것으로 예상되나 '96년 중 침체했던 유럽경제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일본경제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 경제는 中國의 緊縮政策 緩和에 따른 높은 성장과 중남미 경제의 회복세 지속 등으로 '96년 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유럽 및 러시아 경제도 플러스(+)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97년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인 상승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선진국의 수입수요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7%대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國際金利

- 世界經濟의 上昇勢가 擴散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국제금리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아 安定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금리의 경우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美國의 경우 '96년 2/4분기 이후 경기호조로 금리인상이 예상되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어 경기의 둔화국면에 접어들어 금리인상의 가능성이 퇴조하였고, '97년에도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회복이 예상외로 不進했던 獨逸과 日本은 '96년 중 금리가 안정적이었으나 '97년 중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만한 상승이 예상됨.

(3) 國際換率

- '97년 미달러화는 일본 및 독일경제의 완만한 상승에 힘입어

'96년에 비해 強勢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 독일의 경제회복과 금리인상에 의한 엔화 및 마르크화에 대한 달러貨 弱勢化는 환율의 장기적인 변동(long swing) 및 최근 국제무역결제 통화로서의 달러貨 역할을 감안할 때 '97년 보다는 '98년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円貨의 경우 日本經濟의 回復勢 지속에 따른 금리인상 예상과 현재 엔저에 따른 輸出増加로 인하여 '97년에는 엔화의 완만한 약세를 전망할 수 있음.
- 마르크화는 '97년 중 景氣上昇으로 경기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유지해 온 저금리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金利가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一時的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기조는 美달러貨의 강세가 예상됨.

<표 I - 3> 國際金利 및 換率 展望

구 분		'96				'97	
		1/4	2/4	3/4	4/4	2/4	4/4
금 리 ¹⁾	미 국	5.3	5.5	5.3	5.2	5.2	5.0
	일 본	0.5	0.7	0.6	1.0	1.8	2.5
	독 일	3.3	3.1	3.2	3.2	3.7	4.4
국제환율 ²⁾	엔/달러	106.5	109.8	108.5	108.0	110.5	113.0
	마르크/달러	1.48	1.52	1.48	1.54	1.57	1.60

주 : 1) 금리는 3개월 만기 유로금리로 기말기준임.

2) 환율은 기말기준임.

자료 : WEFA, *Foreign Exchange Rate Outlook*, 1995. 9.

2. 金融經濟環境

가. 金融市場 開放

- '97년 1월부터 OECD의 자본이동 自由化規約 및 經常貿易外 去來 자유화규약에 대한 자유화율이 65%에 이르게 되는 등 金融開放化가 크게 확대되어 해외자본 유입,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진입 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株式市場과 債券市場 등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海外資金의 流入이 증대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금리인하 등이 기대되는 반면, 통화관리상의 곤란, 物價不安 등 국내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할 가능성도 있음.
 - 外國人의 주식투자한도의 경우 20%에서 23%로 확대되고, 채권시장의 경우 중소기업 無保證 장기채에 대한 직접투자와 외화표시 채권발행이 '97년 12월부터 허용될 예정임.
 - '97년부터 제한적 범위내에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引受·合併이 許容되고, 12월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시 자기자본조달비율 폐지와 중소기업의 연지급기간 및 수출선수금 기간에 대해 지역 및 용도에 관계없이 180일로 연장 등의 자유화가 계획되어 있음.
- OECD 자유화규약의 이행으로 '97년 중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폭이 점차 擴大될 계획이며, '98년 말까지는 100% 지분참여 및 現地法人 設立이 허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외국 금융기관에 의한 市場蠶食이 예상됨.

- 投信業의 경우 '97년 말까지는 외국인지분제한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며, 상호금융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종금사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97년 중 자유화될 예정임.
- 保險業의 경우 '97년중 합작생보사의 최저지분(49%) 폐지 및 재보험업, 保險代理店이 자유화되며, '98년 말에는 은행 및 증권사업 전면 자유화와 보험브로커 개방이 시행될 계획임.

나. 金融産業 構造改編

- 同種 및 異種 금융기관간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引受·合併 및 大型化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강화되고 있어 引受·合併과 大型化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개방화 및 경쟁격화에 따른 不實 金融機關의 出現이 크게 우려되고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증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構造改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의 개정추진)가 진행되고, 대형화 및 綜合金融化를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金融市場 開放과 금융기관 不實化의 우려 등으로 금융기관 대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금융전업기업가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規制緩和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타금융업무에 대한 子會社 設立을 통한 進入許容의 폭이 확대되는 등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화되고, 자회사설립을 통한 종합금융화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 현단계 금융산업 개편의 기본방향은 銀行, 證券, 保險을 3大 軸으로 하여 고유업무에 관한 직접 경영은 금지하되 자회사설립을 통한 他業種 進出과 종합금융기관화를 허용하는 방향이며, 이와 함께 모회사에 의해 수행가능한 업무영역의 범위도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실정임.
- 銀行産業의 경우, 타금융권의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금융분야에서 固有의 業務領域이 縮小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내부경영의 자율화, 단기성 수신의 단계적 자유화, 정책금융의 전면 폐지, 신상품 개발허용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M & A 및 子會社 設立을 통한 타 금융업으로의 진출도 활발히 모색할 전망이다.
- 證券産業의 경우, '96년 중 증권사의 투신업진출이 허가된데 이어, 증권법 200조(주식대량소유제한) 폐지, 신설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업무 허용, 주가지수 옵션시장 개설 등 규제완화 및 업무영역 확대 폭이 커지고 있는 반면, 타금융권의 투신업 진출도 가능해져 競爭激化가 예상됨.

다. 金融市場 制度改編

- '96년 말 콜시장이 통합되고 콜중개전문기관이 설립되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콜차입한도가 설정됨.
- '95년말 第3段階 金利自由化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금리자유화 시대가 열린데 이어 '97년 이후 제4단계 금리자유화가 추진될 예정임.
 - 第3段階 金利自由化의 完了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보통예금, 저축예금과 별단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1-3개월짜리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등 요구불예금과 초단기예금임.
- 국내 채권시장이 3년만기 회사채를 중심으로 한 단기시장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더불어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채권시장의 미비로 투자대상이 대출 등 단기자금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러한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임.
- 株價, 金利의 변동성이 증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先物去來 등 파생금융 상품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96년도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보험사에게 株價指數先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음.
 - 향후 유니버설보험 등 실적배당 신상품의 도입시 投資危險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活用되어야 할 것임.

II. 保險環境 變化

1. 開放化 및 國際化

가. 經濟的需要審査(ENT, Economic Needs Test) 廢止

- 현행 보험사설립 관련 법령 및 규정중 정부당국이 보험사 新規 設立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던 ENT조항이 '97년부터 폐지되고, 보다 客觀的이고 透明한 기준으로 대체됨.
- 또한 허가거부사유 및 신청자의 이의신청권이 도입됨으로써 정부가 보험사 新規設立 申請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해짐.
- ENT조항의 폐지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험사 설립자격 요건의 緩和 및 그 허가심사기준의 透明성이 제고됨으로써 외국사업자의 追加的인 國內進出 시도가 점차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생보의 경우 보험사간 競爭深化로 특히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는 생보사들의 경영환경이 더욱 惡化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지점 및 사무소의 설치만이 허용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경우 新規 合作社 또는 자회사의 설립이 예상됨.

나. 크로스보더(Cross - border) 追加 許容

- 外國會社가 우리나라에 지점 또는 자회사 등의 영업거점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국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가 '97년 1월부터 生命保險 全種目, 손해보험종목 중 長期傷害保險, 海外旅行保險, 船舶保險에 대하여 추가로 허용됨.
- 生命保險의 경우 현재 보험계약이 募集人體制를 통한 거래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조직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크로스보더의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中長期的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영업방식의 고비용화에 따라 향후 인터넷(internet) 등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그 波及效果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 損害保險의 경우 대그룹의 손보사 보유로 인하여 시장잠식이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나 '98년으로 예정된 보험브로커의 대외개방과 맞물려 손보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그룹의 물건 등 高額企業性物件을 중심으로 해외유출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다. 保險브로커制度 導入

- 그동안 보험업법에 關聯 規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보험시장의 여건미성숙으로 인해 그 도입이 연기되어온 보험브로

커제도가 '97년 4월부터 損害保險에 도입되고 '98년에는 生命保險에 도입될 예정임.

- 保險브로커는 보험사와의 상품 및 價格協商力을 바탕으로 계약자의 편에서 보험계약을 중개하므로 보험사간의 상품개발, 가격 및 서비스경쟁을 가속화시켜 消費者의 權益이 증대될 것임.
- 보험브로커가 優良物件 특히 기업성 우량물건을 중개하는 경우 보험사의 가격인하 競爭이 가속화될 것임.
- 보험브로커는 보험계약자를 위해 최적의 보험상품을 중개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노력이 촉진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하는 주문형상품(tailor-made product)의 활성화가 예상됨.
- 기존 모집조직에 보험브로커가 참여함으로써 短期的으로는 募集市場의 혼란과 경쟁이 강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집조직간 效率性 경쟁을 통한 모집시장의 재편이 예상됨.
- 보험브로커는 信賴度, 財務能力, 稅制上 問題, 協商力 強化 등의 이유로 법인화, 대형화의 필요성이 있어 대형 보험모집조직의 出現이 예상됨.
- 축적된 언더라이팅 경험과 고도의 危險管理技法을 구사하는 외국의 대형브로커가 국내에 진출할 경우 보험사에 대한 가격협상력과 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손해보험의 企業性 保險市場을 잠식할 가능성이 큼.

2. 自由化의 推進

가. 保險價格自由化

- 保險價格自由化 추진일정에 따라 '97년 4월부터 生命保險의 예정위험율과 이자율차배당이 자유화되고,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험료를 제외한 損害保險 전종목으로 자유요율 체제가 확대됨.
- 事後價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배당의 경우 사업비차 배당을 제외한 위험율차배당과 이자율차배당이 자유화됨으로써 보험사별 사업운영실적에 따른 價格競爭이 가속될 것임.
- 이에 따라 회사별 실적치를 반영하는 보험료산출이 가능해지며 市場原理에 입각한 보험사간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경영합리화 노력이 제고될 것이며 고객서비스도 더욱 향상될 것임.
- 다양한 신상품이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반면 상품선택에 있어서의 혼란이 가중될 것임.
- 外形爲主의 經營戰略을 구사하는 보험사들의 경우 계약인수를 위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이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됨.

나. 再保險去來 自由化

- 정부는 '98년에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재보험거래의 자유화를 '97년 4월로 1년 앞당김으로써 早期自由化를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93년 4월의 第1段階(항공, 재산종합) 및 '96년 4월의 第2段階(선박, 자동차, 보증, 적하, 상해, 근재, 장기 등) 재보험자유화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화재, 특종보험 등 전 종목에 대한 재보험거래가 '97년 4월부터 完全自由化됨.
- 또한 요율구득협정 및 국내사 우선출재제도가 廢止됨으로써 국내원수사간의 요율경쟁이 深化될 것이며 특히 기업보험의 요율인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국내사 우선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원수사들의 海外再保險 直去來 増加로 국내원수사들의 재보험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며, 재보부문 수입보험료 확보차원에서 국내사간의 상호재보험 및 외국사와의 교환재보험(Reciprocity)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
- 재보험거래 자유화와 해외재보험시장의 軟化(soft market)기조의 영향으로 수지역조현상이 심화될 것임.
- 損害率이 良好한 고액기업성물건의 경우 요율인하경쟁이 예상되는 반면에 不良物件의 경우 인수거부 또는 요율인상이 예상됨.

- 再保險 去來의 완전자유화에 따라 기존의 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외국의 우수한 재보험자에 비해 擔保力, 技術力, 서비스능력 등에서의 경쟁력이 脆弱한 국내 재보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다. 保險社 資産運用의 先進化 및 自律化 擴大

- OECD가입과 정부의 行政規制緩和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규제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資産運用部門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전략과 투자기법의 선진화 노력이 한층 중요해 질 전망이다.
- 자율운용자산제도를 이용하여 보험사들의 주가지수선물 등 派生商品에 대한 投資가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차 보험사의 투자기법의 선진화와 투자대상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사에 대한 契約者貸出制度의 廢止에 따라 대출대상이 확대되고 일반 대출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보험사에 대한 콜머니허용에 따라 자금차입의 폭이 확대되고 자금운용의 自律性이 提高됨과 동시에 국공채창구판매나 보험상품 판매에 있어서 타금융권과의 업무제휴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3. 其他

가. 金融産業 業務領域 調整 및 金融機關間 引受・合併

- 「21世紀 經濟 長期構想」의 금융산업개편안에 따라 2000년까지의 業務領域 調整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유지하되, 異種 業種의 핵심업무에 대한 직접경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자회사를 통한 異種 業種의 相互進出 폭을 확대허용함.
- OECD가입에 따라 외국금융기관들의 직접 進出이 가능해져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의 世界的 潮流인 겸업주의화가 국내금융제도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임.
- 子會社 方式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업종간 업무영역조정이 OECD가입을 계기로 예정보다 빠른 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異種 業種의 핵심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폭이 예상보다 早期에 커질 수 있음.
 - 은행간 합병시 보험사 신설이 가능해짐으로써, 타업종의 보험업 진출과 같은 업무영역 조정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업과 타업종간의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業務提携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현재 보험회사는 일부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와 상품 및 판매상의 업무제휴를 하고 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戰略的 提携를 강화해갈 것으로 전망됨.

- 현행 「金融機關 合併 및 轉換에 관한 法律」이 1997년 3월 3일부터 「金融産業의 構造 調整에 관한 法律」로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 동 개정으로 금융기관 합병에 대해서 개별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되고, 합병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리해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
- 不實金融機關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인수·합병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과 맞물려 일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나. 非課稅家計長期貯蓄 受信競爭 加速

- '96년 10월 21일 부터 발매된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현행 개인연금과 같이 대부분의 金融機關에서 취급할 수 있고 적용시한이 '98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수신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 보험사의 경우 은행, 투신사, 상호신용금고 등 타금융기관에 비해 收益率이 떨어지나 각종 保障惠澤 및 부가서비스 제공과 募集組織을 활용한 적극적 영업전략을 구사할 것임.
- 그러나 非課稅家計長期貯蓄이 비교적 短期商品이고 稅制惠澤도 타금융기관과 동일하며 滿期에 一時金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때 보험권이 타금융권에 비해 과거 개인연금상품 도입시와 같은 수신경쟁에서의 경쟁력확보는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됨.

- 生命保險의 경우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 기존의 대표적 저축
성상품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을 대체하여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신계약고는 크게 萎縮될 것이며, 損害保險의 경우 장기보험
상품중 마이라이프보험을 대체하여 동상품의 신계약 위축이
예상됨.

Ⅲ. 保險産業의 現況

1. 生命保險

가. 收入保險料 增加勢 持續

(1) 新契約

- '96.4~8월 까지의 新契約을 보면 主力商品인 生存保險을 포함하여 全종목에서 증가를 보임. 특히, 死亡保險에서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짐.

<표 Ⅲ-1> 生命保險 新契約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계
FY'91	2,363,846	262,784	326,395	153,705	3,106,730
증가율	26.2	141.0	15.1	24.3	30.1
FY'92	2,773,001	565,973	312,131	179,401	3,830,506
증가율	17.3	115.4	-4.4	16.7	23.3
FY'93	3,226,033	805,992	279,362	221,783	4,533,170
증가율	16.3	42.4	-10.5	23.6	18.3
FY'94	4,534,247	878,707	210,135	225,012	5,848,101
증가율	40.6	9.0	-24.8	1.5	29.0
FY'95	4,086,472	2,003,196	255,985	383,604	6,729,257
증가율	-9.9	128.0	21.8	70.5	15.1
'96.4~8	1,698,460	1,160,063	116,357	171,678	3,146,558
증가율	2.2	61.3	28.1	22.5	20.5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 生存保險은 FY'95의 경우 노후복지연금보험의 신계약 감소로 전년보다 9.9% 감소하였으나, '96.5월 保險差益課稅期間의 연장(5년→7년)에 앞서 일시납보험료 등이 증가 함으로써 前年同期對比 2.2%의 소폭 증가를 보임.
- 死亡保險은 소득증대에 따른 健康에 대한 관심증대 및 최근 빈발하는 대형사고등 각종 위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危險保障에 대한 需要가 增大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件數基準으로 19.9%, 金額基準으로 61.3%의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生死混合保險은 보험차익과세 기간의 연장에 앞서 새가정복지보험의 일시납이 증가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으로는 0.3% 증가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28.1%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
- 한편, 團體保險은 전년동기대비 건수기준으로는 8.6%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오히려 22.5%의 증가를 나타냄.

<표 III-2> '96.4~8月 生命保險 新契約 現況

(단위 : 천건, %)

구 분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계
'95.4-8	건수	2,230	2,027	393	880	5,530
	증가율	-19.5	82.1	14.0	19.4	11.3
'96.4-8	건수	1,985	2,431	394	804	5,614
	증가율	-11.0	19.9	0.3	-8.6	1.5

(2) 保有契約

- 보유계약액은 '95년 6월중에 1,000조를 達成한 데 이어 '96년 8월에 1,300조를 돌파하였으며, 生存保險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死亡保險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生存保險은 보유계약에 대한 비중이 年初 66.4%에서 8월말 63.0%로 감소한 반면, 死亡保險은 24.2%에서 27.6%로 증가하였음.

<표 III-3> 生命保險 保有契約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계
FY'91	3,731,399	307,234	484,035	278,032	4,800,700
비중	77.7	6.4	10.1	5.8	100.0
FY'92	4,438,915	631,560	491,531	326,388	5,888,394
비중	75.4	10.7	8.4	5.5	100.0
FY'93	5,426,463	1,064,722	476,304	389,785	7,357,274
비중	73.7	14.5	6.5	5.3	100.0
FY'94	7,100,955	1,563,020	456,691	448,774	9,569,440
비중	74.2	16.3	4.8	4.7	100.0
FY'95	7,954,082	2,902,031	507,988	623,266	11,987,367
비중	66.4	24.2	4.2	5.2	100.0
'96.4~8	8,261,632	3,620,022	538,964	695,320	13,115,938
비중	63.0	27.6	4.1	5.3	100.0

- 보험종류별 보유계약 비중을 살펴보면 生存, 生死混合, 團體保險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핵가족화,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등의 환경변화에 기인하여, 보험의 순기능이 강조되어 보장보험인 死亡保險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保有契約 件數 基準으로 보험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年初對比 死亡保險만이 2.3%p 증가한 데 비하여, 타 보험종류는 모두 소폭 감소하였음.

<표 III-4> '96. 8月 現在 保有契約 現況

(단위 : 천건,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계
건 수	12,702	11,327	2,122	5,363	31,514
비 중	40.3	35.9	6.7	17.0	100.0

(3) 收入保險料

- 收入保險料에서는 死亡保險, 生死混合保險 및 團體保險의 新契約 成長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3.2%의 증가에 그침.
- 生存保險에서는 주력상품인 노후복지연금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 및 개인연금보험의 판매에 힘입어 前年 同期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초년도보험료는 5.0% 감소하였음.
- 死亡保險은 전년동기대비 54.7%의 증가를 보였는데, 초년도 보험료가 76.1%, 2차년도 이후 보험료가 43.6%로 타보험종목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회사의 中長期保險 活性化 정책과 소비자의 보장보험 인식제고등으로 收入保險料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5>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초회보험료	초년도보험료	2차년도 이후 보험료	합계
FY'91	57,629	57,354	78,788	193,771
증가율	7.5	20.8	32.0	20.8
FY'92	67,392	68,446	90,576	226,414
증가율	16.9	19.3	15.0	16.8
FY'93	58,537	76,854	105,143	240,534
증가율	-13.1	12.3	16.1	6.2
FY'94	62,447	85,816	129,232	277,495
증가율	6.7	11.7	22.9	15.4
FY'95	103,660	91,635	157,585	352,880
증가율	66.0	6.8	21.9	27.2
'96.4~8	32,981	40,920	68,110	142,011
증가율	17.5	8.4	14.2	13.2

- 生死混合保險은 전년도에는 金融所得綜合課稅에 따라 일시납 보험인 새가정복지보험의 판매증가로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76.9%로 높았으나, 금년에는 보험차익과세 기간 연장에 따라 새가정복지보험의 一時納 판매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增加率이 커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에 비해 10.8%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2%의 감소를 보임.

- 團體保險에서는 2차년도 이후 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회보험료와 초년도보험료가 더욱 증가하여 18.1%의 증가를 보임.

<표 III-6> '96.4~8月 收入保險料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초회 보험료	초년도 보험료	2차년도이 후보험료	합계
개 인 보 험	생존	7,833	27,820	45,766	81,419
	증가율	19.1	-5.0	16.0	8.1
	사망	1,265	7,268	9,635	18,168
	증가율	39.8	76.1	43.6	54.7
	생사혼합	7,206	3,484	4,270	14,960
	증가율	-10.8	22.8	1.1	-1.2
	계	16,304	38,572	59,671	114,547
	증가율	4.8	6.4	18.4	12.1
단 체 보 험		16,677	2,348	8,439	27,464
증가율		33.4	55.8	-8.8	18.1
합 계		32,981	40,920	68,110	142,011
증가율		17.5	8.4	14.2	13.2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4) 會社그룹別 市場占有率

- 收入保險料 기준으로 會社別 市場占有率は 年初對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기존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다소 증가함.
- 既存社는 73.1%에서 76.7%로 증가한 반면, 內國社는 12.3%에서 11.4%로, 地方社는 8.5%에서 6.4%로 감소하였음.

<표 III-7> 生命保險 會社그룹別 市場占有率 推移

(단위: %)

연 도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FY'91	85.6	6.5	3.7	4.1	0.1
FY'92	81.8	8.1	4.6	5.3	0.2
FY'93	76.7	10.7	5.4	6.9	0.3
FY'94	73.7	11.8	5.9	8.2	0.4
FY'95	73.1	12.3	5.7	8.5	0.3
'96.4~8	76.7	11.4	5.1	6.4	0.4

- 契約高를 기준으로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기존사를 제외한 기타사의 경우 新契約 점유율이 保有契約 점유율보다 높으며, 收入保險料基準으로는 내국사와 지방사의 경우 초회 보험료 점유율이 전체보험료 점유율보다 높음.

<표 III-8> '96.8月 生命保險 會社그룹別 市場占有率 現況

(단위 : %)

구 분	수입보험료		계약고	
	초회	전체	신계약	보유계약
기존사	74.1	76.7	79.4	81.8
내국사	12.2	11.4	10.3	9.3
합작사	3.1	5.1	4.7	4.6
지방사	10.5	6.4	5.2	3.9
외국사	0.2	0.4	0.5	0.4

나. 收支差 改善

(1) 保險金支給率의 減少勢 示顯

- 8월까지 支給保險金은 전년동기대비 9.0% 증가('95년에는 15.8% 증가)하였으나, 保險金支給率은 전년동기의 72%보다 다소 낮은 69.4%를 기록함.
- 이는 지급보험금에서 큰 비중(약 56.7%)을 차지하는 生存保險의 還給金, 生死混合保險의 보험금의 증가율이 다소 감소했기 때문임(생존보험 환급금: 8.8%→8.5%, 생사혼합보험 보험금: -5.5%→-17.0%).
- 단체보험의 경우도 還給金에서는 크게 증가(7.0%→65.6%)하였으나 보험금에서 증가율의 減少가 현저하여(120.9%→-11.1%), 지급보험금 전체의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65.2%→12.6%)하였음.

<표 III-9> 生命保險 支給保險金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FY'91	34,851	88,389	5,110	128,350
FY'92	29,199	140,713	5,969	175,881
FY'93	33,265	159,834	4,591	197,690
FY'94	38,719	156,588	4,139	199,446
FY'95	50,163	168,864	5,105	224,042
'96.4~8	21,417	75,445	1,645	98,507

<표 III-10> '96.4~8月 生命保險 種目別 支給保險金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계
개 인	생존	1,791	53,218	811	55,821
	증가율	19.2	8.5	7.3	8.8
	사망	1,235	2,279	195	3,710
	증가율	52.1	63.1	38.3	57.8
	생사혼합	4,565	8,533	218	13,318
	증가율	-17.0	4.5	-19.9	-4.5
	계	7,592	64,031	1,224	72,847
	증가율	-2.9	9.2	4.7	7.8
단 체		13,825	11,414	421	25,660
증가율		-11.1	65.6	28.4	12.6
합 계		21,417	75,445	1,645	98,507
증가율		-8.4	15.2	9.9	9.0

- 회사별로는 既存社의 지급보험금이 전년동기대비 11.3% 증가한 반면, 지방사는 15.2% 감소하였음.
- 환급금은 기존사, 내국사, 지방사를 포함한 국내사의 경우 약 14%~24%의 증가율을 보여, 합작사나 외국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수지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 地方社의 지급보험금이 減少한 이유는 보험금에서 54.4%의 큰폭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임.

<표 III-11> '96.4~8月 生命保險 會社別 支給保險金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기존사	15,852	57,807	1,471	75,130
증가율	3.2	13.9	6.2	11.3
내국사	2,251	8,555	95	10,901
증가율	2.5	23.4	75.9	18.7
합작사	1,343	3,558	34	4,935
증가율	-12.8	8.0	41.7	1.6
지방사	1,933	5,313	42	7,288
증가율	-54.4	22.8	31.3	-15.2
외국사	38	213	2	253
증가율	18.8	12.7	-	13.5

(2) 費差益의 示顯

- 금년에는 生死混合保險에서 超過事業費가 발생했으나, 절대적으로 금액이 큰 生存保險에서 비차익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388억의 비차익을 시현함.
- 금년 8월까지 實際事業費는 전년동기대비 신계약비 13.2%, 유지비 1.5%, 수금비 9.5%등 10.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신계약비 23.3%, 유지비 23.9%, 수금비 23.7% 등 23.5%증가)에 비하여 크게 改善된 것으로 회사의 內實經營으로 인한 사업비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한 데 기인함.

<표 III-12> 生命保險 事業費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계	초과사업비율 ¹⁾
FY'91	15,630	6,970	2,146	24,736	3.37
FY'92	19,874	8,111	2,706	30,691	-0.55
FY'93	23,709	9,441	2,956	36,106	-4.16
FY'94	35,042	12,722	3,325	51,089	0.65
FY'95	43,571	16,463	4,156	64,190	4.09
'96.4~8	19,226	5,803	1,668	26,697	-1.38

주 : 1) 초과사업비율은 예정사업비 대비 초과사업비의 비율임.

- 상품별로 보면 生存保險, 死亡保險 및 團體保險에서 費差益이 발생한 반면, 生死混合保險에서는 큰 폭의 費差損을 기록함.

<표 III-13> '96.4~8月 生保商品別 事業費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사업비계	초과사업비율
개 인 보 험	생존보험	10,874	3,676	1,033	15,583	-2.7
	사망보험	6,081	2,099	355	8,535	-0.4
	생사혼합보험	1,470	591	214	2,274	14.4
	계	18,424	6,365	1,602	26,391	-0.7
단체보험		802	438	66	1,305	-13.1
합 계		19,226	6,803	1,668	27,697	-1.4

- 예정 및 실제사업비율 現況을 살펴보면 기존사는 예정사업비

율이 20.0%로 실제사업비율 18.3%에 비해 1.7% 높으나, 그 외의 회사들은 모두 예정사업비율이 실제사업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여전히 비차손을 기록함.

<표 III-14> '96.8월 生保會社그룹別 事業費率 現況

(단위 : %)

구 분	개인보험		단체보험		전체	
	예정	실제	예정	실제	예정	실제
기존사	23.3	21.5	5.8	4.5	20.0	18.3
내국사	23.0	25.9	4.0	4.3	18.9	21.3
합작사	24.6	29.4	11.3	13.2	23.2	27.7
지방사	19.3	30.4	3.4	4.5	14.5	22.7
외국사	39.1	45.2	12.2	26.2	37.8	44.5
전체사	23.2	23.0	5.5	4.8	19.8	19.5

주) 사업비율은 收入保險料 대비 사업비의 비율임.

- 전체적으로 死亡保險, 個人年金保險 판매확대와 新設社의 支給餘力規制에 따른 내실경영으로 약간의 비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분석됨.

(3) 失効解約率 例年水準 維持

- 기본적으로 '91~'95년까지 維持率의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나 25회차 유지율이 개선되고 있음.
- 實效解約率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6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0%p 감소한 14.0%를 나타냄.

- 전년 동기와 비교할때 회사별로는 기존사, 地方社, 內國社 및 외국사는 감소한 반면 合作社는 증가하였음.
- 향후 실효해약율은 內實經營에 따라 短期金融性商品의 판매가 감소하고 中長期商品 販賣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될 것으로 보임.

<표 III-15> 維持率 推移

(단위 : %)

구 분	FY'91	FY'92	FY'93	FY'94	FY'95
13회차	59.3	58.3	59.1	58.3	56.9
25회차	41.2	40.9	41.7	40.7	43.1

<표 III-16> 實效解約率 推移

(단위 : %)

구 분	FY'92	FY'93	FY'94	FY'95	'96.8
개 인	33.3	30.9	29.0	28.5	14.3
단 체	17.1	17.9	15.3	15.8	8.9
전 체	32.5	30.2	28.4	27.8	14.0
기존사	31.7	28.8	25.5	24.7	12.5
내국사	36.1	34.9	37.4	37.5	20.1
지방사	38.6	39.4	35.4	34.2	17.1
합작사	34.0	33.0	40.7	45.0	25.5
외국사	22.4	28.3	32.6	25.7	11.8

(4) 收支差의 改善

- '90년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던 保險收支差는 '94년과 '95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96년 8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45.7%의 증가로 증가추세가 다소 鈍化됨.
- 이는 보험금지급율은 2.6%p 下落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13.3%p 감소하였고 사업비율도 0.2%p 증가한 데 기인함.
(收入保險料 26.5% → 13.2%, 保險金支給率 72.0% → 69.4%, 事業費率 19.3% → 19.5%).

<표 III-17> 生命保險 收支差의 趨勢

(단위 : 억원, %)

연 도	보험수지차 ¹⁾		총수지차 ²⁾	
		증가율		증가율
FY'91	40,676	-21.3	76,072	-2.7
FY'92	19,842	-51.2	62,138	-18.3
FY'93	6,598	-66.7	48,330	-22.2
FY'94	26,961	308.6	72,606	50.2
FY'95	64,648	139.8	117,959	62.5
'96.4-8	15,807	45.7	42,173	29.1

주 : 1)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

2) 총수지차 = 수입보험료 + 투자 및 기타수입 - 지급보험금 - 사업비 - 기타지출

- 한편, 總收支差는 주식시장의 침체와 금리의 하향안정세가 작용하여 보험수지차보다 16.6%p 낮은 29.1% 증가에 그침.

다. 資産運用收益率의 下落

- 資産運用收益率は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투자여건의 惡化로 전년도 보다 낮은 10.7%에 머물렀음.
- 이러한 저조한 자산운용수익율은 株式市場의 沈滯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에 따른 것으로, '91년 이후 최저 수익율을 기록 하였으나, '96년도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서 回復 기조로 轉換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수익율은 점차 改善될 것으로 보임.

<표 III-18> 生命保險 資産運用 實績

(단위 : 억원, %)

연 도	총자산	운용자산	자산운용수익	자산운용수익율	
				총자산	운용자산
FY'91	388,261	366,520	39,625	12.0	12.7
FY'92	451,551	423,018	47,204	11.9	12.7
FY'93	502,002	467,618	49,049	10.8	11.7
FY'94	576,810	539,169	55,750	10.9	11.7
FY'95	696,767	654,843	65,301	10.8	11.6
'96.4-8	737,570	695,340	29,326	10.0	10.7

- 회사별로 자산운용 대상을 살펴보면 現預金の 비중이 증가 하고 貸出金の 비중이 감소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현예금 비중의 증가는 資産運用準則의 改正에 의한 현예금 보유한도가 폐지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특히 기존사

와 외국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貸出金の 경우 기존사와 합작사 및 외국사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내국사와 지방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표 III-19> 生命保險 會社別 資産運用對象의 比重

(단위 : %)

연 도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금	부동산	운용자산수익율
기존사	11.4 (7.9)	28.6 (27.6)	48.1 (52.3)	8.3 (7.5)	10.7 (11.1)
내국사	11.6 (13.0)	22.8 (22.2)	49.0 (43.3)	4.0 (8.5)	10.7 (10.5)
합작사	12.3 (11.9)	31.1 (27.5)	39.7 (40.6)	1.4 (3.7)	11.3 (10.6)
지방사	24.8 (24.0)	15.1 (15.1)	39.1 (34.9)	4.0 (0.5)	10.1 (10.3)
외국사	22.3 (16.1)	43.9 (49.7)	6.5 (7.1)	0.0 (0.0)	12.2 (10.2)
전체사	12.2 (9.4)	27.5 (27.6)	47.2 (49.9)	7.4 (7.5)	10.7 (11.0)

주) 1. '96년 8월 기준이며, ()안은 '95년 8월기준임.

라. 新商品開發 活發

- FY'96년 上半期('96. 4. 1~ 9.30)동안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한 상품은 133종(특약 포함)으로 보장성보험(단체, 특약 포함) 72종, 연금보험 35종, 생사혼합보험 17종, 교육보험 9종, 단체보험 17종이 개발되었음
- 최근 몇년간 保障性保險이 活發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각종 사고에 대한 국민의 不安心理 増大, 健康에 대한 필요성 증대 및 遺族에 대한 經濟的 自立의 必要性 등에 기인하여 보장성보험의 수요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20> FY'96 上半期 生命保險 新商品開發 內譯

(단위 : 건)

구 분	개 인 보 험				특약	단체	합계
	교육	연금	생사혼합	보장성			
배 당	9	35	7	23	4	16	94
무배당	-	-	10	19	10	-	39
합 계	9	35	17	42	14	16	133

○ 또한 상품개발 件數는 매년 増加趨勢에 있는데, 전년 동기의 85건에 비해 56%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원인은 신설사의 상품개발 활성화 및 특정시장등을 공략하는 틈새시장용 상품 개발이 활성화 된 것으로 분석됨.

- 商品開發의 特徵은 다음과 같음.

○ 종래의 저축성보험에 치우친 영업정책에서 벗어나,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보장성보험 개발이 활성화 됨.

· 成人病 발병 및 각종 재해사고시 본인의 治療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生活保險 상품의 개발.

· 가격자유화 진전에 따라 配當등 競爭力에서 劣勢에 있는 신설사등이 보험료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배당 보장성보험 개발.

- ・標準未達體等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상품의 활성화.
- 노사화합의 증진 차원에서 従業員 福祉를 향상시키려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一括加入用 개인연금저축 및 단체보장보험 개발이 활성화됨.
- 보험차익과세 기간의 연장과 '97년 이차배당 자유화 예정에 따라 무배당생사혼합보험의 개발이 활성화됨.
- ・ 종래의 3년, 5년만기 상품에서 7년, 10년만기 저축성상품의 개발로 보험차익과세 기간 연장에 대응.

마. 主要政策 推進現況

(1) 價格自由化의 推進

- 생명보험의 가격자유화 일정

구 분	제1단계 ('94.4)	제2단계 ('95.4)	제3단계 ('97.4)	제4단계 ('98이후)
계약자 배당	-	위험율차 배당	이자율차 배당	사업비차 배당
보험료	사업비율중 예정유지비	-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 율등

- 가격자유화의 목적은 價格決定에 自律性을 부여함으로써 보험사들로 하여금 언더라이팅, 경비 등을 반영한 자율적 가격 결정이 가능토록 하여, 가입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상품,

요율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추진일정별로 진행되고 있음.

(2) 制3回經驗生命表의 作成

- 현재 사용중인 제2회경험생명표는 작성된지 5년이 경과하면서 최근 高齡化 趨勢의 개선된 실적사망율을 반영치 못하고 있어, 최근 사망을 통계를 기초로 한 제3회경험생명표의 작성을 추진중에 있음.
- '97년 4월 시행 예정인 예정위험율 자유화와 연계한 생명표를 작성할 예정이며, 제2회경험생명표와 連繫된 암사망율등 각종 예정위험율도 함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3) 支給餘力制度의 改正

- 價格自由化의 推進과 더불어 契約者保護를 위한 생보사 支給能力 確保가 강조되고 있음.
- o '96년 2월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充實化 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보호 및 회사 經營의 健全성을 도모하였음.
- 지급여력의 부족으로 18개 회사가 증자명령 또는 증자권고를 받음. 특히 신설사의 경우 超過事業費 해소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4) 標準 危險職種 分類의 改正

- 1995년 5월 이후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위험직종 및 등급분류에 대하여 실적통계를 근거로 合理的인 調整을 통한 표준 위험직종 및 등급분류를 개정·현실화 함으로서 계약사 정업무의 科學化 도모 및 계약자간의 衡平性 제고

2. 損害保險

가. 收入保險料의 增加勢 持續

- 損害保險 收入保險料 成長率은 '95년 8월1일의 자동차보험의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과 장기손해보험의 금융형 상품 판매호조 및 산업의 다양화에 따른 특종보험의 수요확대등의 영향으로 '95년에 31.1%, '96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31.1%의 높은 增加勢를 보이고 있음.

<표 III-21> 損害保險 收入保險料의 增加率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FY'91	FY'92	FY'93	FY'94	FY'95	96.4~8
국내	GNP(10억) ¹⁾	214,240	235,705	265,518	303,773	348,284	-
경제	증 가 율 ²⁾	9.1	5.0	5.8	8.4	8.7	-
손보	보 험 료 ³⁾	46,745	57,082	67,016	81,900	107,409	52,206
산업	증 가 율	31.8	22.1	17.4	22.2	31.1	31.1

주 : 1) '96년실적은 잠정치임(기준: 경상가격)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기준:90년 불변가격)

3) 원수보험료기준이며 해약환급금이 공제된 실적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1995)」, 「보험통계월보(96.10)」

- 收入保險料중 自動車保險과 長期損害保險(개인연금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년 8월 현재 손보전체의 83.1%로 두 보험종목의 市場支配現象이 持續되고 있음.

<표 III-22> 損害保險 種目別 收入保險料 및 損害率 現況

(단위 : 억원, %)

종 목		FY'95				'96. 4 - 8			
		보험료 ¹⁾	증가율	구성비	손해율 ²⁾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손해율
화 재		3,718	10.6	3.5	40.8	1,645	-0.4	3.2	50.0
해 상		3,839	-0.7	3.6	60.2	1,818	-8.4	3.5	40.4
자동차		48,886	23.0	45.5	78.5	24,526	33.9	47.0	73.6
보 증		6,601	6.1	6.1	97.1	2,513	-7.8	4.8	125.7
특 종 ³⁾		6,610	28.9	6.2	49.0	2,843	22.0	5.4	41.1
장 기	일반	30,592	53.4	28.5	93.2	15,423	53.9	29.5	89.0
	연금	7,163	97.3	6.7	72.5	3,439	23.5	6.6	87.2
	소계	37,755	60.2	35.2	89.3	18,862	47.3	36.1	88.6
합 계		107,409	31.1	100.0	79.8	52,206	31.1	100.0	78.3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해약환급금이 공제된 실적임.

2) 경과보험료와 손해액을 비교한 경과손해율임.

3) 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보험의 합계이며 기타 특종에는 해외원보험이 포함하며 항공보험은 제외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1995)」, 「보험통계월보(1996.10)」

- 自動車保險은 自動車保有臺數의 꾸준한 증가와 '95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개선 및 요율조정에 따라 '96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33.9%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음.
- FY'95에 97.3%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個人年金保險은 '96년 8월 현재 23.5%의 增加率을 기록하여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장기보험 전체로 볼때는 전년동기대비 47.3%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음.
- 保證保險은 FY'94에 40.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후 계속되는 경기부진 및 부도기업의 여파로 경영이 위축됨에 따라

FY'95에 6.1%의 낮은 성장에 이어 '96년 8월 현재 전년동기 대비 -7.8%로 減少勢를 나타내고 있음.

- 特種保險은 産業化의 진전에 따른 각종 賠償責任의 수요증가, 政府發注工事に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확대, 傷害保險의 성장 및 지속적인 새로운 보험수요로 전년동기대비 22.0% 증가한 2,843억원을 기록함.
-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火災保險과 海上保險은 '96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각각 -0.4%, -8.4%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價格自由化 및 保險市場開放에 따른 影響으로 보험요율이 큰폭으로 引下되고 있으며, 비교적 新商品 開發需要가 限定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짐.

나. 保險收支의 小幅改善

- '95년도 損保全體 保險營業損失은 그동안 손보사 영업수지 악화의 주요인이었던 自動車保險의 실적호조로 '94년보다 13.8% 감소한 6,901억원을 기록하여 손보사들의 財務狀態가 개선조짐을 보였으며, FY'96에 들어 火災 및 海上保險의 營業利益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종목에서 실적이 호전되어 '96년 8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22.9%가 개선된 2,616억원의 손실을 나타내고 있어 損保社의 保險收支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표 III-23> 損害保險 種目別 事業實績 現況

(단위 : 억원, %)

구 분	보유경과 보험료		손 해 액		손 해 율 ¹⁾		사 업 비		보험영업 이익 ²⁾	
	FY'95	'96.8	FY'95	'96.8	FY'95	'96.8	FY'95	'96.8	FY'95	'96.8
화 재	2,073	1,166	1,318	605	48.8	51.9	1,399	560	-14	1
해 상	2,921	1,134	1,049	464	35.9	40.9	901	404	972	266
자동차	44,494	21,943	35,331	16,171	79.4	73.7	11,404	6,285	-2,240	-513
보 증	5,770	2,484	5,514	3,082	95.5	124.1	1,098	364	-841	-961
특 종 ³⁾	4,144	1,969	2,299	1,049	55.5	53.3	1,270	569	575	351
장 기	30,674	15,413	28,625	13,704	93.3	88.9	5,563	3,208	-3,514	-1,499
개인연금	7,143	3,457	5,147	3,014	72.0	87.2	1,578	706	387	-263
기 타 ⁴⁾	542	209	290	130	53.5	62.2	200	77	52	3
합 계	98,392	47,775	79,571	38,219	80.9	80.0	23,413	12,173	-6,901	-2,616

주 : 1) 손해액(손해조사비 제외)을 보유경과보험료로 나눈 것임.

2) 비상위험준비금은 종목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합계의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감안한 수치임.

3) 기술, 책임, 상해, 중합, 기타 특종보험의 합계이며 기타 특종에는 해외원보험이 제외됨.

4) 해외원보험과 외국수재 실적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1995)」, 「보험조사월보(96.10)」.

- 自動車保險의 營業損失은 FY'95에 2,240억원으로 전년도의 5,239억원에 비하여 큰폭으로 개선되었으며, '96년 8월중의 영업손실도 513억원으로 적자폭이 전년 동기에 비해 44.2% 감소하고 있음.

○ 自動車保險의 收支改善은 교통사고 발생율의 감소와 '95년 8월1일의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에 따른 것으로 당분간 이와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나 '96년 8월 1일의 保險金 支給基準

引上, 保險金 原價의 上昇등 營業收支 악화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FY'91(-1,187억), FY'92(-3,134억) 심각한 영업손실을 보였던 保證保險은 FY'95에 841억원의 營業損失로 실적개선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경기부진 및 중소기업의 倒産 등으로 구상채권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96년 8월 현재 961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여 적자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個人年金을 포함한 長期損害保險은 책임준비금 적립액 증가액이 증가하여 投資損益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FY'95에 3,127억원의 營業損失을 보였으며, '96년 8월 현재 1,761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음.
- FY'95중 가장 큰 營業利益을 낸 보험종목은 海上保險과 特種保險으로 각각 972억원, 575억원을 기록하여 손보사의 재무상태 개선에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6년 8월 현재 각각 266억원, 351억원의 營業利益을 보이고 있음.

다. 資産運用收益率의 小幅 減少

- 보험회사의 總資産중 資産運用收益의 源泉인 運用資産은 FY '95에는 10조 4,478억원으로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고 그 비중은 82.2% 이었으며, '96년 8월 현재에도 82.1%로 큰 변동은 없음.

<표 III-24> 損害保險 資産運用 實績

(단위 : 억원, %)

연 도	총 자 산	운용자산	투자영업 수익	자산운용수익율 ¹⁾	
				총 자 산	운용자산
FY'91	58,649	47,342	4,897	9.6	12.0
FY'92	67,935	55,008	5,692	9.4	11.8
FY'93	79,730	65,274	7,038	10.0	12.4
FY'94	95,847	78,182	7,907	9.4	11.7
FY'95	127,114	104,478	8,908	8.3	10.3
'96.4-8	142,047	116,619	4,483	8.1	9.9
('95.4-8)	(106,459)	(87,128)	(2,844)	(6.8)	(8.4)

주 : 1) 자산수익율 = $2 \times \text{투자수익} \div (\text{연초자산} + \text{당월말자산} - \text{투자수익}) \times 12/m$

2) '96년 8월 투자영업수익에는 영업외손익 및 특별손익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1995)」, 「보험조사월보(96.8)」

- FY'95의 資産收益率は 주식시장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 투자환경의 악화로 總資産運用 收益率が 전년 동기의 9.4%보다 1.1%p 낮은 8.3%를, 운용자산 수익율은 전년 동기의 11.7%보다 1.4%p 낮은 10.3%를 기록했으며, '96년 8월 현재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높은 9.9%의 수익율을 시현함.

라. 海外 再保險去來의 收支惡化持續

- FY'95중 世界 再保險市場은 재보험자의 실적개선추세에 따라

'90년도 초반의 硬化(Hard Market)基調에서 벗어나 軟性化(Soft Market)基調로 전환되어 해외재보험 출재가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있음.

- FY'95 國內 海外再保險 去來實績은 전년도의 1억 6,628만 달러의 赤字를 약간 상회하는 1억 6,793만 달러의 적자를 보여 收支惡化가 지속되고 있음.

<표 III-25> 海外再保險 去來實績

(단위 : 천달러)

구 분		FY'91	FY'92	FY'93	FY'94	FY'95
수재	수지차	-16,698	-12,739	-9,842	-6,663	-265
	손해율	108.6	97.1	91.6	86.3	69.9
출재	수지차	8,242	-91,387	-59,345	-159,617	-167,664
	손해율	83.5	55.4	77.9	49.1	52.7
순수지차액		-8,456	-104,126	-69,187	-166,280	-167,929

주 :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을 수입보험료로 나눈 것임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1995)」

- 종목별 수지상황은 海上保險이 4,158만달러, 長期保險이 47만 달러의 黒字를 보일뿐 특종 1억 2,448만달러를 비롯하여 火災 7,530만달러, 自動車 963만달러, 보증 57만달러의 赤字를 나타냄.
- 海外出受再 狀況의 特徵은 지급보험료(562,094천달러)가 收入保險料(40,701천달러)의 약 14배로 出超現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平均損害率도 수재손해율 69.9%, 출재손해율

52.7%로서 수재손해율이 17.2% p나 높아 海外出受再의 逆調現象이 深化되고 있음.

마. 主要 政策推進 現況

(1) 3段階 價格自由化의 推進

- '96년 4월 건전한 價格競爭을 통해 保險産業의 효율성과 계약자의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1단계 範圍料率 시행종목에 대해 自由料率을 실시함.

보 험 종 목		FY'95보험료(억원)	범위요율폭
해상보험	선박보험	170	± 30%
	운송보험	76	± 30%
배 상 책 임	영업배상	131	± 30%
	선주(유도선)	9	± 15%
	도로운송	43	± 30%
	가스배상	54	± 15%
	체육시설	16	± 15%
근 재 보 험		1,037	± 30%
기술보험	기계보험	8	± 30%
	조립보험	51	± 30%
	건설공사보험	6	± 30%
동 산 중 합 보 험		766	± 30%
도 난 보 험		59	± 30%
합 계		2,426	

주 : FY'95 보험료는 협정 수입보험료 기준임.

- 기초통계의 부족, 회사별 실적편차 및 수용능력 등 현실적인 보험시장 여건을 고려 標準料率의 범위폭을 확대하고 위험별로 수정요건을 설정하여 운영.

(2) 自動車保險의 制度改善

- 自動車保險에서는 '96년 8월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고, 自動車保險 3단계 價格自由化 실시, 責任保險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對人賠償 보험료 조정을 실시하였음.
- 保險金支給基準 현실화 및 責任保險 報償限度 확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責任保險料의 할인할증제 도입, 기본보험료 自由化로 사고위험도에 상응하는 보다 合理的인 料率체계가 이루어짐.
-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인 保險金 支給基準을 대폭 현실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함.
-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지급보험금 항목 중 위자료, 장례비, 취업가능연한,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대폭 상향조정.
- 출퇴근시 승용차함께타기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減額制度를 폐지하고, 차량파손시 열처리 도장료의 지급범위 등을 대폭 확대.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 계획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대한 範圍料率 制度 導入

- 개인용 $\pm 3\%$, 업무용 $\pm 5\%$, 영업용 $\pm 10\%$ 의 범위를 둠.
- 責任保險 보상한도가 '97년 8월부터 사망/부상/후유장해기준 6,000/1,500/3,000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임에 따라 '96.8월 이후 체결되는 保險契約은 계약체결 날자에 상응하도록 責任保險料가 인상 조정됨.
- 또한 責任保險에도 “割引割増率과 保險加入經歷料率”을 도입하여 우량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인되도록 함.

IV. 保險産業의 展望

1. 保險産業 主要指標

가. 收入保險料

- FY'96 보험산업 전체 收入保險料는 55조 464억원으로 FY'95에 비해 19.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생명보험은 지속적인 사망보험의 성장과 년초 保險差益課稅期間 延長에 따른 판매 확대, 하반기부터 판매되는 非課稅家計長期貯蓄 도입등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한 41조 4,1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표 IV-1> 年度別 收入保險料 및 增加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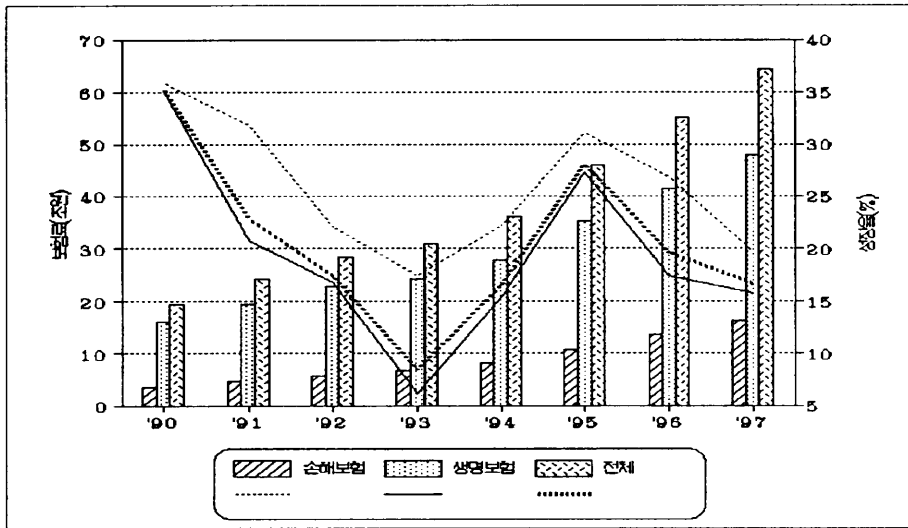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년도	80년대 연평균	90년대 연평균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생명 보험	(37.8)	(17.0)	16.0 (35.2)	19.4 (20.8)	22.6 (16.8)	24.1 (6.2)	27.7 (15.4)	35.3 (27.2)	41.4 (17.4)	47.9 (15.7)
손해 보험	(24.6)	(24.6)	3.5 (35.9)	4.7 (31.8)	5.7 (22.1)	6.7 (17.4)	8.2 (22.2)	10.7 (31.1)	13.6 (26.9)	16.3 (19.7)
전체	(34.1)	(18.6)	19.5 (35.3)	24.1 (22.8)	28.3 (17.4)	30.8 (8.5)	35.9 (16.6)	46.0 (28.1)	55.0 (19.6)	64.2 (16.7)

주 : 1) 80년대는 '80~'89년, 90년대는 '90~'97년임.

2) 상단은 收入保險料, 하단은 성장율임.

<그림 IV-1> 全體 收入保險料 增加率 推移



- 손해보험은 장기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成長勢 지속 및 일반손해보험 종목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FY'95 대비 26.9% 증가한 13조 6,349억원으로 추정됨.
- FY'97 보험산업 전체 收入保險料는 FY'96보다 2.9%p 낮은 16.7% 증가한 64조 2,393억원으로 전망됨.
- 生命保險은 生死混合保險 및 團體保險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나 生存保險의 재성장과 보장성보험의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1.7%p 낮은 15.7% 증가, 47조 9,195억원으로 전망됨.
- 損害保險은 개인연금보험 및 일부 기업성 물건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장기보험 및 自動車保險의 지속적 성장과 배상책임보험 관련분야의 신규수요가 예상되나, '97년 4월부터 손해보험 전종목에 대해 자유요율제가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종목의 경우 시장개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대내외

적 시장격화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전년대비 7.2%p 낮은 19.7%가 증가한 16조 3,198억원으로 전망됨.

나. 保險寄與度¹⁾

- FY'97 保險寄與度는 收入保險料의 꾸준한 증가로 생명보험은 1.0%p 상승한 12.15%, 損害保險은 0.47%p 상승한 4.14%이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1.47%p 높아진 16.29%로 전망됨.

<표 IV-2> 年度別 保險寄與度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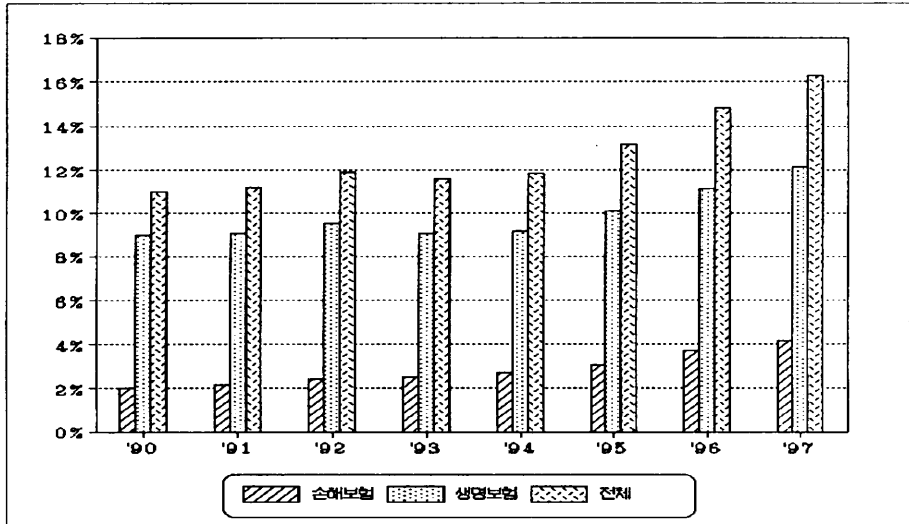
(단위 : %)

년 도	80년대 연평균	90년대 연평균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P)	FY'97 (E)
생명보험	5.78	9.90	9.00	9.04	9.49	9.06	9.16	10.13	11.15	12.15
손해보험	1.40	2.83	1.99	2.18	2.39	2.52	2.70	3.08	3.67	4.14
전 체	7.18	12.73	10.99	11.23	11.88	11.58	11.87	13.21	14.82	16.29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보험기여도는 '93년을 기준으로 세계 5위에 해당(1위 : 일본 12.64%, 2위 : 남아프리카 12.16%, 3위 : 짐바브에 11.74%, 4위 : 영국 11.73%)되었으나, 국내 보험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1) 보험기여도(insurance penetration, 保險浸透度라고도 함)는 保險産業이 國民經濟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國內總生産(GDP)에 대한 收入保險料의 백분율을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국내총생산 대신 國民總生産을 이용했음.

<그림 IV-2> 保險寄與度 推移



- FY'96 保險寄與度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도입 및 최근 대형사고 빈발등의 영향으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생명보험은 11.15%, 손해보험은 3.67%이며,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FY'95에 비해 1.61%p 상승한 14.82%로 추정됨.

다. 1人當 保險料

- 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認知度인 보험밀도 즉, 1人當保險料 (insurance density)는 FY'97에 1,407,460원으로 FY'96에 비해 1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생명보험료는 14.7%, 손해보험료는 18.7% 증가할 것임
- FY'96 1인당보험료는 1,216,549원으로 FY'95에 비해 18.5%

증가, 생명보험은 16.3%, 손해보험은 25.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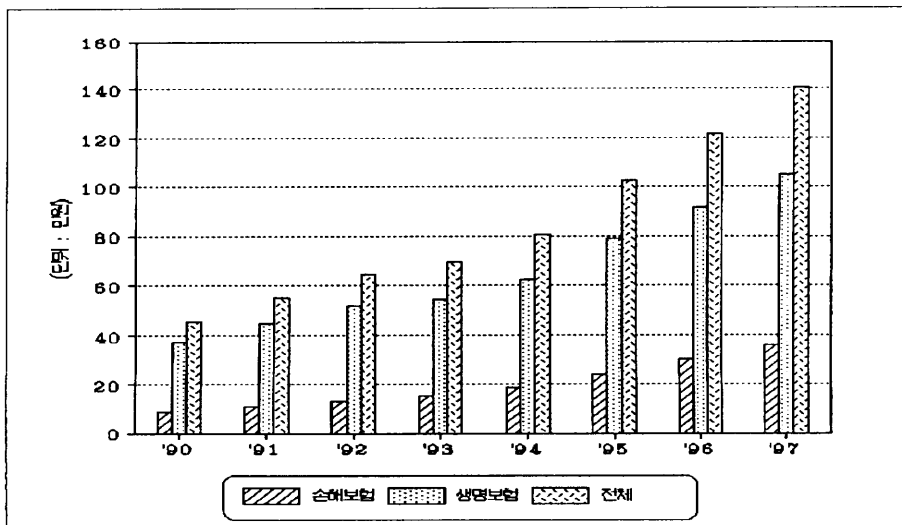
<표 IV-3> 年度別 1 人當 保險料 推移

(단위 : 원)

년 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P)	FY'97 (E)
경 상 가 격	생명보험	374,247	447,839	518,549	545,973	624,143	786,783	915,212	1,049,889
	손해보험	82,762	108,035	130,732	152,117	184,239	239,479	301,337	357,561
	전 체	457,008	555,874	649,281	698,089	808,482	1,026,262	1,216,549	1,407,460
불 변 가 격 ¹⁾	생명보험	374,246	406,388	443,583	446,603	482,041	576,398	637,778	700,400
	손해보험	82,762	98,035	111,832	123,873	144,269	175,442	209,990	238,533
	전 체	457,008	504,423	555,415	568,477	624,310	751,840	847,768	938,933

주 : 1) 불변가격은 '90년 기준임

<그림 IV-3> 國民 1人當 保險料 推移



- '90년 不變價格을 기준으로 한 FY'97 1人當保險料는 938,933 원으로 FY'90에 비해 105.4%의 實質成長을 시현하는 것으로 추정됨.
- 生命保險은 87.1%, 損害保險은 188.2% 증가할 것으로 보임.

라. 生·損保 構成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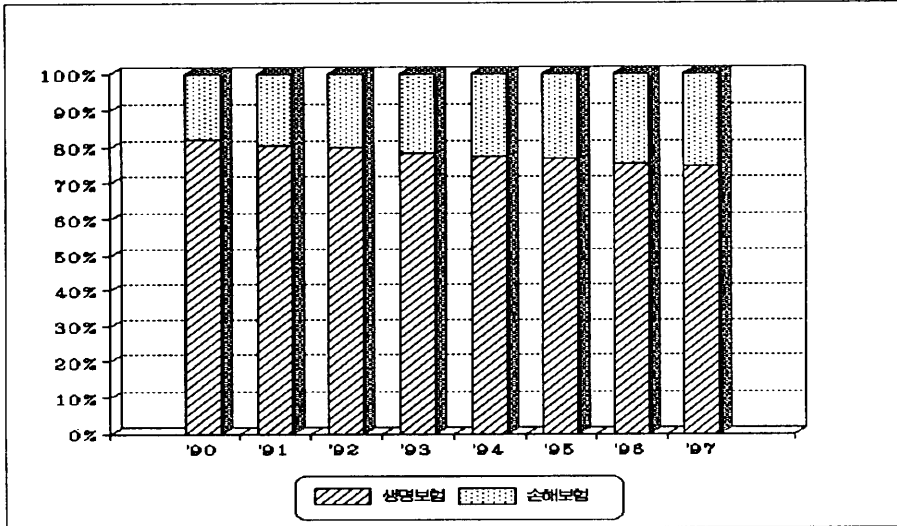
- FY'97 생·손보구성비(收入保險料 기준)는 74.6 : 25.4로 自動車保險과 長期損害保險에서 큰폭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 FY'96 구성비는 75.2 : 24.8 로 FY'95에 비해 손해보험의 비중이 0.5%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損害保險의 성장율이 '90년대 들어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표 IV-4> 年度別 生·損保 構成比 推移

(단위 : %)

년 도	80년대 연평균	90년대 연평균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 (P)	FY'97 (E)
생명보험	80.5	78.0	81.9	80.6	79.9	78.2	77.2	76.7	75.2	74.6
손해보험	19.5	22.0	18.1	19.4	20.1	21.8	22.8	23.3	24.8	25.4

<그림 IV-4> 生・損保의 收入保險料 構成比 推移



마. 營業效率

- FY'97 生命保險 保險金支給率(總支給保險金/收入保險料)은 生存保險金의 지급금 증가율 둔화 및 단체보험의 지급금 증가율鈍化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0.2%p 낮은 64.3%로 營業효율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FY'96에는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死亡保險과 團體保險의 증가세가 계속되어 전년대비 1.0%p 높아진 64.5%로 FY'95에 비해 營業효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FY'96 損害保險 損害率은 自動車保險의 요율조정과 내실경영 효과에 의해 전년대비 1.0%p 낮아진 78.8%로 전망되며 FY'97에는 전년보다 다소 낮은 75.5%를 보일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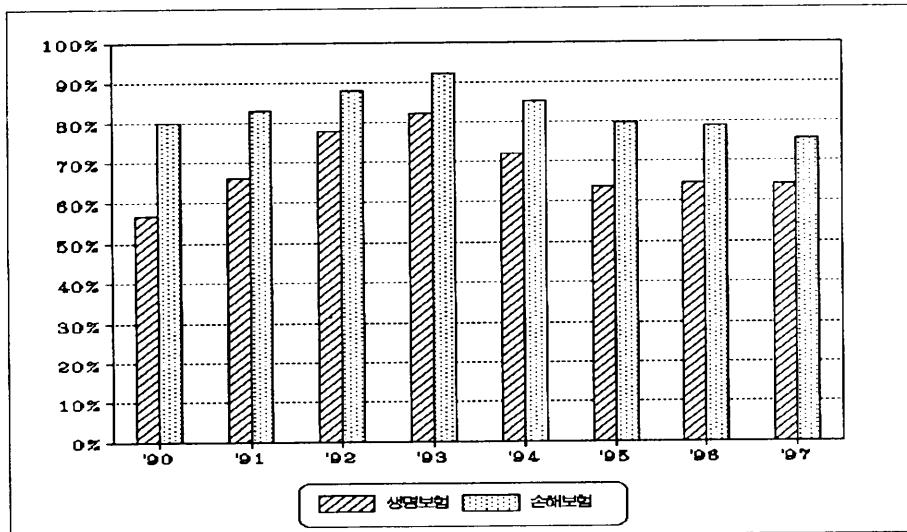
<표 IV-5> 年度別 營業效率의 推移

(단위 : %)

연 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생명보험 보험금지급율	56.7	66.2	77.7	82.2	71.9	63.5	64.5	64.3
손해보험 손해율 ¹⁾	79.9	83.0	87.9	91.9	85.2	79.8	78.8	75.5

주 : 1) 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경과손해율임.

<그림 IV-5> 保險營業效率 推移



바. 總資産

- FY'97 總資産은 전년도보다 0.4%p 높은 19.7% 증가한 117조 6,741억원으로 전망됨.
- 生命保險 總資産은 기본적 投資與件의 악화 및 收入保險料

증가율 둔화,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의 증가로 收支差가 악화되어 전년도보다 0.5%p 낮은 19.0% 증가한 99조 1,155억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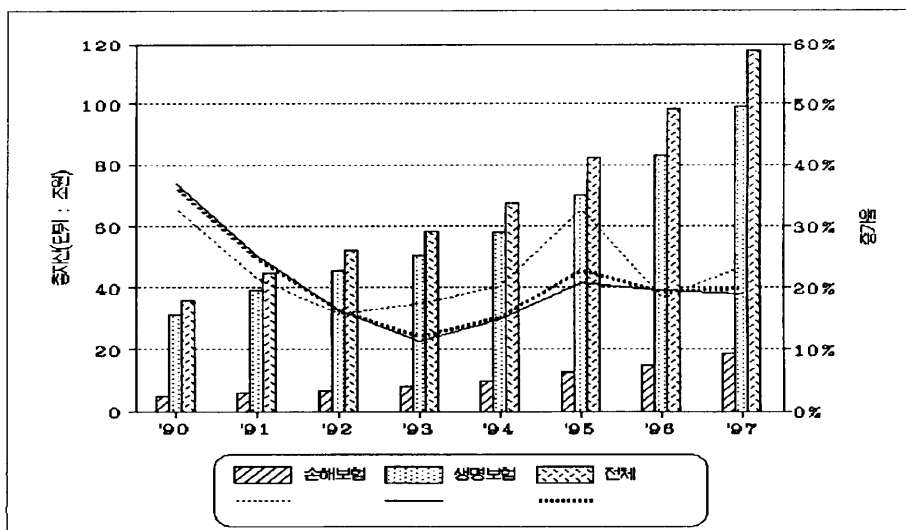
<표 IV-6> 年度別 總資産 및 増加率 推移

(단위 : 조원, %)

연 도	FY'90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생명보험	31.0 (36.9)	38.8 (25.2)	45.2 (16.3)	50.2 (11.2)	57.7 (14.9)	69.7 (20.8)	83.3 (19.5)	99.1 (19.0)
손해보험	4.8 (32.8)	5.9 (21.3)	6.8 (15.8)	7.9 (17.4)	9.6 (20.2)	12.7 (32.6)	15.0 (18.4)	18.6 (23.3)
전 체	35.8 (36.3)	44.7 (24.7)	52.0 (16.2)	58.1 (12.0)	67.2 (15.6)	82.4 (22.6)	98.3 (19.3)	117.7 (19.7)

주 : ()는 전년대비 성장율임.

<그림 IV-6> 保險産業 總資産 増加率 推移



- 損害保險 총자산은 收入保險料 증가와 損害率 저하에 힘입어 전년대비 4.9%p 높은 23.3% 증가한 18조 5,586억원으로 추정됨.
- FY'96 보험산업 총자산은 FY'95에 비해 19.3% 증가한 98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며 生命保險은 19.5%, 損害保險은 18.4%의 성장이 예상됨.

2. 生命保險

가. 綜合展望

(1) 收入保險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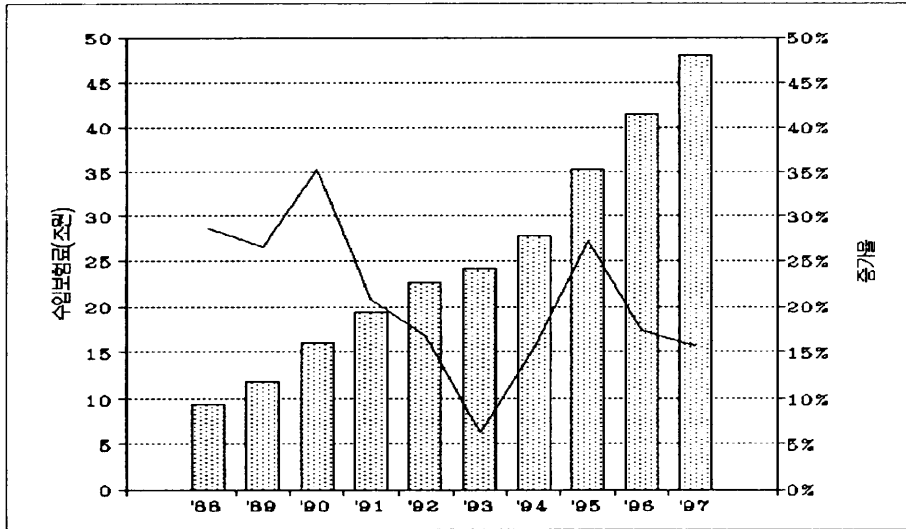
- FY'97의 收入保險料는 保障性保險의 지속적인 성장, 非課稅 家計貯蓄制度의 도입에 따른 생사혼합보험의 급속한 증가로 FY'96보다 15.7%증가한 47조 9,19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한편, FY'96의 경우도 직장단체의 個人年金貯蓄 一括加入, '96.10월부터 도입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의 도입, 보장성 보험등의 성장으로 전년보다 17.4% 증가하여 41조 4,11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IV-7> 生命保險種目別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151,405	25.8	42,366	5.6	193,771	20.8
FY'92	184,185	21.7	42,229	-0.3	226,414	16.8
FY'93	198,874	8.0	41,660	-1.3	240,534	6.2
FY'94	226,380	13.8	51,115	22.7	277,495	15.4
FY'95	274,936	21.4	77,944	52.5	352,880	27.2
FY'96(P)	326,435	18.7	87,680	12.5	414,115	17.4
FY'97(E)	384,410	17.8	94,785	8.1	479,195	15.7

<그림 IV-7> 生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2) 支給保險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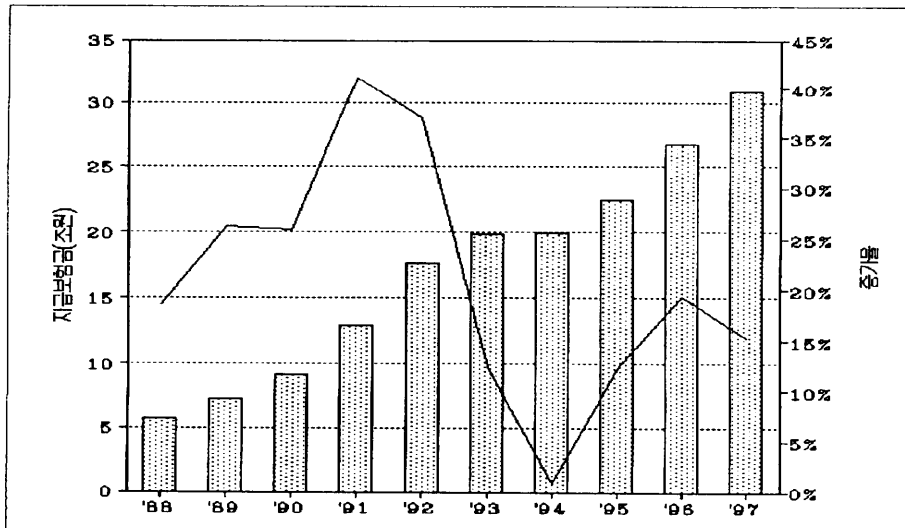
- FY'97에는 生存保險금 및 사망보험의 持續的 増加,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환급금등 生死混合保險의 増加 등으로 전년보다 15.3% 増加한 30조 8,286억원에 이를 전망임.
- 한편, FY'96 生命保險 總支給保險금은 FY'95보다 19.3% 増加한 26조 7,28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95년 보험차익과세기간 연장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새가정복지보험의 집중판매에 따른 生死混合保險의 増加추세로의 反轉, 生存保險 보험금 증가지속 및 死亡保險금의 지급증가, 團體保險의 환급금 増加예상 등에 기인함.

<표 IV-8> 生命保險 種目別 總支給保險金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보험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106,673	38.6	21,677	55.3	128,350	41.1
FY'92	136,065	27.6	39,815	83.7	175,880	37.0
FY'93	155,294	14.1	42,536	6.8	197,830	12.5
FY'94	162,575	4.7	37,180	-12.6	199,755	1.0
FY'95	167,791	3.2	56,203	51.2	223,994	12.1
FY'96(P)	186,633	11.2	80,653	43.5	267,286	19.3
FY'97(E)	208,891	11.9	99,395	23.2	308,286	15.3

<그림 III-8> 生命保險 總支給保險金 推移



(3) 事業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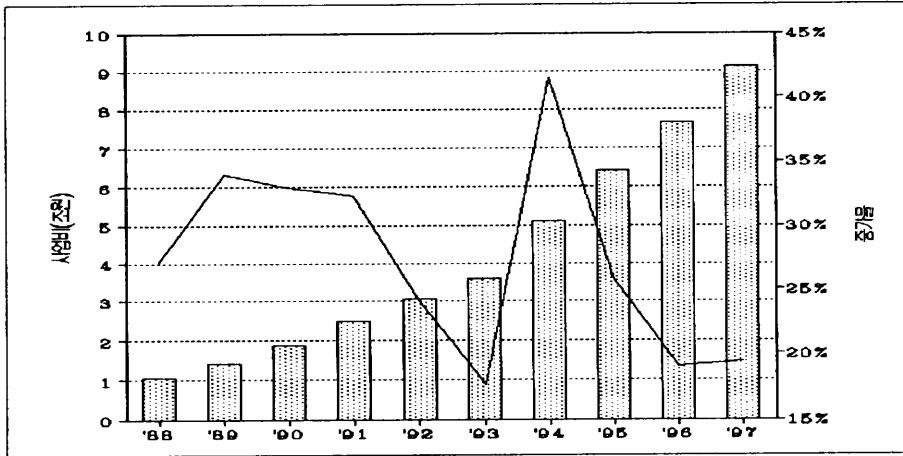
- FY'97 총사업비는 支給餘力 確保를 위한 실제사업비 절감으로 신계약비 증가세 鈍化 持續, 유지·수금비 증가세 둔화 등으로 FY'96 보다 0.4% P 상승한 19.4% 증가한 9조 1,21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 FY'96 사업비는 전체적인 사업비 増加率 鈍化로 FY'95 보다 19.0% 증가한 7조 6,412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 新設社의 內實經營, 保障性 保險 증가에 따른 초과사업비 감소등으로 신계약비 및 유지비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판매로 생사혼합보험의 費差損이 다소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표 IV-9> 年度別 生命保險 事業費 推移

(단위 : 억원, %)

연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전체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15,630	33.3	6,970	30.1	2,147	31.4	24,747	32.2
FY'92	19,874	27.2	8,111	16.4	2,706	26.0	30,691	24.0
FY'93	23,709	19.3	9,441	16.4	2,956	9.2	36,106	17.6
FY'94	35,042	47.8	12,722	34.7	3,324	12.4	51,088	41.5
FY'95	43,571	24.4	16,463	29.4	4,156	25.0	64,190	25.6
FY'96(P)	51,886	19.1	19,752	20.0	4,774	14.9	76,412	19.0
FY'97(E)	62,159	19.8	23,594	19.5	5,458	14.3	91,211	19.4

<그림 IV-9> 生命保險 事業費 推移



나. 生命保險 種目別 展望

(1) 個人保險

(가) 收入保險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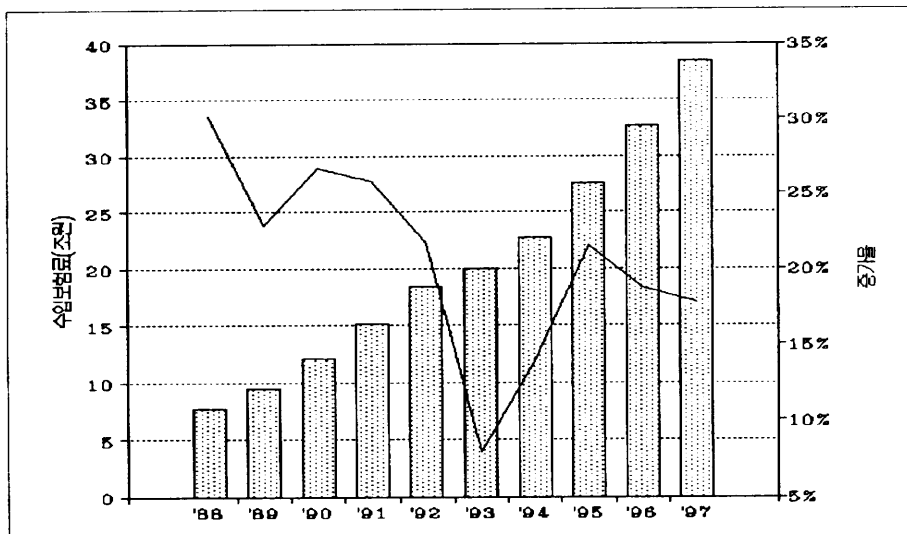
- FY'97의 개인보험 收入保險料는 보장성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 도입에 따른 生死混合保險의 계속보험료 증가가 예상되고, 생존보험의 노후복지연금이 비과세저축으로의 일부 대체 및 대출자유화 시행등 減少要因을 일부 감안하더라도 FY'96보다 17.8%증가한 38조 4,41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한편, FY'96 個人保險 收入保險料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가 10월중 도입되어 생사혼합보험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전년보다 18.7% 증가한 32조 6,43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IV-10> 個人保險 種目別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연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98,978	31.8	3,866	89.0	48,561	12.5	151,405	25.8
FY'92	121,114	22.4	8,214	112.5	54,857	13.0	184,185	21.7
FY'93	150,506	24.3	14,514	76.7	33,854	-38.3	198,874	8.0
FY'94	173,240	15.1	21,241	46.3	31,899	- 9.4	226,380	13.8
FY'95	193,310	11.6	32,426	52.7	49,200	54.2	274,936	21.4
FY'96(P)	202,673	4.8	49,456	52.5	74,306	51.0	326,435	18.7
FY'97(E)	226,556	11.8	75,576	52.8	82,278	10.7	384,410	17.8

<그림 IV-10> 個人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1) 生存保險

- FY'97 個人生存保險 收入保險料는 생존보험의 주종인 노후복지연금보험이 '96년도 하반기부터 비과세가계장기저축으로 代替될 것으로 예상되나, 생보업계에서는 신상품 개발등을 통하여 생존보험의 再成長을 試圖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FY'96보다 11.8% 증가한 22조 6,55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FY'96 個人生存保險 收入保險料는 '95년보다 4.8% 증가한 20조 2,673억원으로 추정됨.
- 그 이유는 生存保險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복지연금이 하반기에 비과세가계장기저축보험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教育保險의 需要減少, 貸出自由化制度 시행('97. 1월)등 감소요인과
- 개인연금의 일괄가입등 지속적인 성장, '96. 5월 보험차익과 세기간 연장에 따른 일시적 증가등 증가요인을 相殺하여 신계약의 증가는 없을 것이나,
- 保有契約의 계속보험료 수입으로 인하여 전체 수입보험료 측면에서는 緩慢한 성장이 예상됨.
- '97년에는 核家族化로 인한 자녀수의 감소,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확대 등에 따른 교육보험은 계속적인 減少趨勢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개인연금 저축의 완만한 상승,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대체상품 개발로 일시적으로 둔화되었던 생존보험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생존보험은 재성장 할 것으로 전망됨.

- '96년 하반기부터 '97년 1/4분기까지 生存保險의 신계약은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의 1世代 1通帳의 특성에 기인하여 실질적 성장은 단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이후부터는 3~5년 이후에 도래하는 만기보험금의 收支差 均衡을 도모하기 위한 생존보험의 활성화가 예상됨.

2) 死亡保險

- FY'97 死亡保險 收入保險料는 소득수준 증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최근 빈발하는 대형사고로 인한 위험 및 경제적보상에 대한 認識提高, 내실경영의 지속적 추진 등으로 '96년보다 52.8% 증가한 4조 9,45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90년도 이후 사망보험의 보장형태가 사망보장에 중점을 둔 유족 중심 보장에서 입원, 수술등 각종 치료자금, 소득보상자금등 피보험자 本人의 治療 및 生活保障을 중점 보장하는 생활보험 형태로 전환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생명보험의 순기능 측면이 높게 부각되어 '96년에도 52.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交通量 增大, 자동차·레포츠문화의 발달에 따른 재해사고 중점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대는 보장성보험의 收入保險料 증가에 크게 기여함.
- 또한,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癌, 心

臟疾患 등 치명적인 성인병의 치료자금을 고액으로 지급하는 疾病保險의 판매증대로 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할 것임.

- 비과세가계장기저축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위축이 우려되나, 상품의 성격이 다르고 소비자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인지도 증가 및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 확보를 위한 내실경영정책등으로 향후 신계약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生死混合保險

- FY'97 生死混合保險 收入保險料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에 힘입어 FY'96 보다 10.7% 증가한 8조 2,27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FY'96 生死混合保險 收入保險料는 초기의 보험차익과세 기간의 연장에 따른 새가정복지보험의 販賣好調과 하반기의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 도입으로 '95년보다 51.0% 증가한 7조 4,30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生死混合保險은 단기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이 주된 상품으로 內實經營, 수지자 개선등 회사의 정책과 금융종합과세, 보험차익과세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收入保險料가 많이 변동되어 왔음.
- '95년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영향으로 새가정복지보험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으며, '96년에도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 도입

으로 전년보다 5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비과세가계장기저축제도는 개인연금저축과는 달리 短期貯蓄性 商品(3,4,5년만기)으로 보장과 저축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에게 저축의 誘引效果가 충분히 있지만, 19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1세대당 1통장의 제한이 있어 신계약은 '96년도 하반기와 '97년도 1/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사에서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보험의 역마진 및 限時的 販賣에 따른 만기 도래시 수지차 역전등에 대한 우려로 회사 체질에 맞는 적정량 판매가 예상되나, 대부분의 회사가 양적 성장 및 질적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판매상의 위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나) 支給保險金

- FY'97에는 個人生存保險金 및 生死混合保險의 還給金 증가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년보다 11.9% 증가한 20조 8,89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생존보험 주종을 이루는 노후복지연금보험이 保險差益課稅 연장 이전에 단기저축성상품으로 대량 판매되었고 전통형상품의 災害, 特定疾病을 중점보장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지급보험금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FY'96 개인보험 총지급보험금은 生死混合保險이 감소세에서 증가추세로 반전되고,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의 지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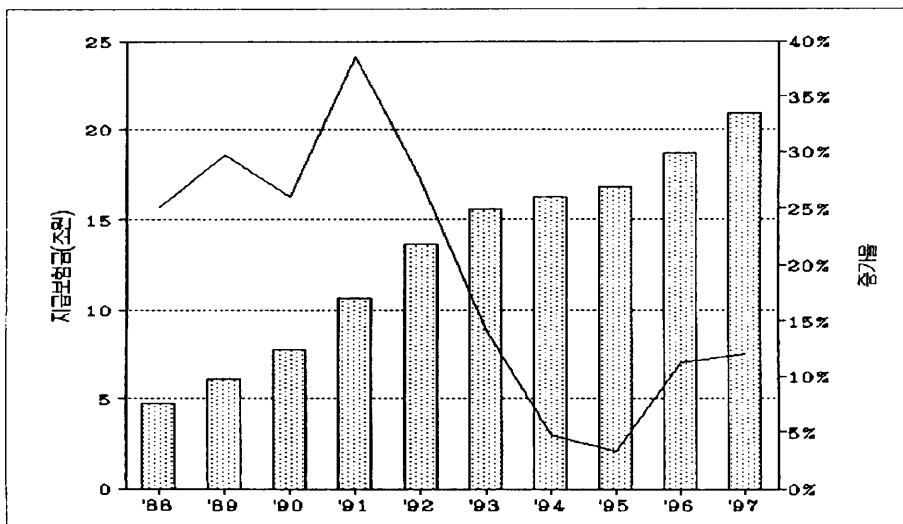
협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FY'95 보다 11.2% 증가한 18조 6,633억원으로 전망됨.

<표 IV-11> 個人保險 種目別 總支給保險金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51,250	63.2	928	27.3	54,495	21.5	106,673	38.6
FY'92	85,307	66.5	1,454	56.7	49,304	-9.5	136,065	27.6
FY'93	100,947	18.3	2,402	65.2	51,945	5.4	155,294	14.1
FY'94	120,204	19.1	3,990	66.1	38,381	-26.1	162,575	4.7
FY'95	127,832	6.3	6,545	64.0	33,414	-12.9	167,791	3.2
FY'96(P)	140,854	10.2	9,707	48.3	36,072	8.0	186,633	11.2
FY'97(E)	153,933	9.3	14,219	46.5	40,739	12.9	208,891	11.9

<그림 IV-11> 個人保險 總支給保險金 推移



1) 保險金

- FY'97에는 生存保險 및 死亡保險의 보험금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며,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판매확대에 따라 生死混合保險의 보험금도 증가세로 反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FY'96 대비 16.0% 증가한 2조 2,812억원에 이를 전망임.

<표 IV-12> 個人保險 種目別 保險金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1,276	27.3	551	22.4	23,072	43.9	24,899	42.4
FY'92	1,635	28.1	740	34.3	13,998	-39.3	16,373	-34.2
FY'93	2,101	28.5	1,133	53.1	15,067	7.6	18,301	11.8
FY'94	3,015	43.5	1,630	43.9	14,977	-0.6	19,622	7.2
FY'95	4,062	34.7	2,236	37.2	12,647	-15.6	18,945	-3.5
FY'96(P)	4,747	16.9	3,212	43.6	11,706	-7.4	19,665	3.8
FY'97(E)	5,692	19.9	4,496	40.0	12,625	7.8	22,812	16.0

- FY'96 보험금은 회사의 경영내실화 정책에 따른 '93년 生死混合保險의 판매감소에 영향을 받아 滿期保險金 등은 減少할 것이나, 사망보험 및 생존보험의 판매증가로 전년보다 3.8% 증가한 1조 9,665억원에 이를 전망임.

- '95년 보험차익과세기간 연장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새가정복지보험의 집중적 판매는 있었으나, 동상품은 貯蓄性 爲主이기 때문에 만기보험금은 '98년 이후에 발생될

것이나, 사망보험금의 微細한 증가로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 감소세는 鈍化될 것이며,

- 최근 高額保障을 설계하여 판매량이 급신장한 死亡保險 및 재해등 특화된 담보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전통적 연금보험의 판매확대에 따라 보험금이 전년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FY'97에는 개인보험에서 死亡保險 및 生存保險의 위험보장의 고액화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經營內實化政策등으로 '94년 생사혼합보험의 판매감소에 따라 만기보험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과세가계장기저축등의 사망보험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96년보다 1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還給金

- FY'97에는 생존보험 및 사망보험의 持續的增加 및 생사혼합보험의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실효, 해약의 증대로 FY'96보다 11.4% 증가한 18조 2,16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FY'96 還給金은 生存保險의 증가세 지속 및 生死混合保險의 증가세로의 전환등으로 FY'95 보다 12.2% 증가한 16조 3,58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환급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生存保險의 환급금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절대적 증가가 크며, '95년도 생사혼합보험의 판매확대에 따라 還給金이 增加趨勢로 반전될 것이며, 또한

死亡保險에서의 암보험등 치료보장위주의 상품판매에 따른 환급금증가등으로 '96년에는 12.2% 증가할 전망이다.

- FY'97에는 '95년도의 새가정복지보험의 판매확대에 따른 환급금, 非課稅貯蓄의 中途解止등 생사혼합보험의 환급금 증대와 함께 사망보험 환급금의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나, 환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존보험에서의 증가세 둔화로 '96년 대비 11.4%의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표 IV-13> 個人保險 種目別 還給金 推移

(단위 : 억원, %)

연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49,051	64.5	296	30.4	29,436	6.5	78,783	36.6
FY'92	82,174	67.5	610	106.1	33,861	15.0	116,645	48.1
FY'93	97,350	18.5	1,136	86.2	35,503	4.8	133,989	14.9
FY'94	115,451	18.6	2,148	89.1	22,509	-36.6	140,108	4.6
FY'95	121,668	5.4	3,957	84.2	20,191	-10.3	145,815	4.1
FY'96(P)	133,760	9.9	6,002	51.7	23,822	18.0	163,584	12.2
FY'97(E)	145,768	9.0	9,004	50.0	27,392	15.0	182,164	11.4

3) 配當金

- FY'97에는 '95년의 死差配當自由化에 이어 利差配當의 자유화가 예정되어 있어 生存保險의 증가세 鈍化가 예상되나, 死

亡保險의 증가세 지속 및 生死混合保險의 增加가 예상됨에 따라 FY'96보다 15.7% 증가한 3,915억원에 이를 전망임

- FY'96의 경우에도 資産運用收益率의 減少로 인해 이차배당의 증가가 둔화될 것이며, 사망보험의 배당보험 판매확대에 따른 배당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생사혼합보험에서 중장기양로보험의 판매 부진에 따른 配當金의 減少가 예상되나, 배당대상계약의 증가로 FY'95보다 11.7% 증가한 3,915억원에 이를 전망임.

<표 IV-14> 個人保險 種目別 配當金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개인보험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923	59.1	81	55.8	1,987	68.4	2,991	65.1
FY'92	1,498	62.3	104	28.4	1,445	-27.3	3,047	1.9
FY'93	1,496	-0.1	133	27.9	1,375	-4.8	3,004	-1.4
FY'94	1,739	6.2	212	59.3	895	-34.9	2,845	-5.3
FY'95	2,102	20.9	352	66.0	576	-35.6	3,030	6.5
FY'96(P)	2,347	11.7	493	40.1	544	-5.6	3,384	11.7
FY'97(E)	2,473	5.4	719	45.8	723	32.9	3,915	15.7

- 최근 金利의 下向 安定化 趨勢로 인한 자산운용수익율의 감소로 이차배당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언더라이팅 기술등의 향상으로 사차배당은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되어 전체적

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준비금 적립 및 支給餘力 확보측면에서 일부사의 配當 制限이 따르지만, 전체 배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사망율의 하향안정화 추세를 반영하는 제3회 경험생명표의 시행은 사차배당의 증가요인으로 분석됨

(2) 團體保險

(가) 收入保險料

- FY'97 團體保險 收入保險料는 1997년 하반기 이후에야 國內景氣가 서서히 회복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FY'96보다 8.1% 증가한 9조 4,785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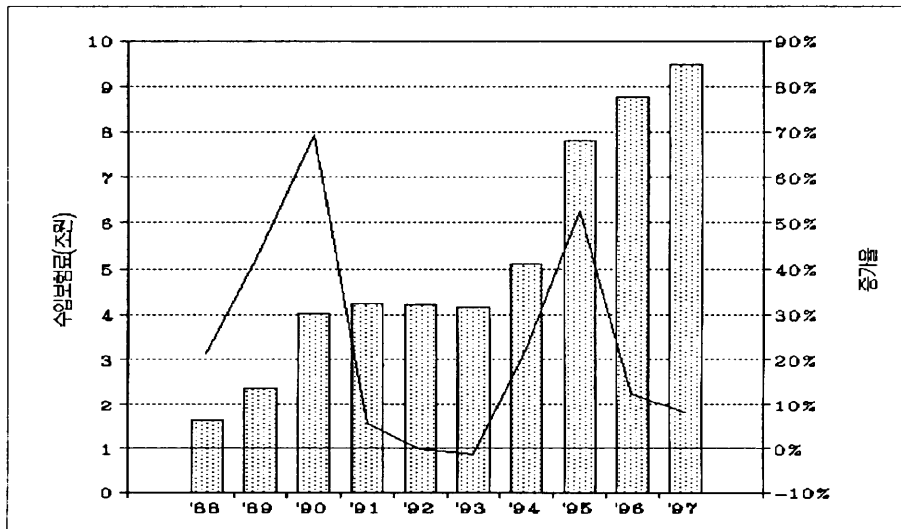
<표 IV-15> 團體保險 主要指標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수입보험료		보 험 금		환 급 금		배 당 금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91	42,366	5.6	9,951	30.6	9,607	96.6	2,119	46.2
FY'92	42,229	-0.3	12,825	28.9	24,067	150.5	2,923	37.9
FY'93	41,660	-1.3	15,105	17.8	25,844	7.4	1,587	-45.7
FY'94	51,115	22.7	19,096	26.4	16,840	-36.2	1,244	-21.6
FY'95	77,944	52.5	31,218	63.5	23,048	36.9	1,937	55.7
FY'96(P)	87,680	12.5	35,631	14.1	42,115	82.7	2,907	50.1
FY'97(E)	94,785	8.1	42,476	19.2	53,723	27.6	3,196	9.9

- FY'96 團體保險 收入保險料는 경기연착륙의 실패가 있었지만 개인보험의 가입한도 제한에 따라 고액자금이 일부 단체보험으로 유입되어 수입보험료는 '95년보다 12.5% 증가한 8조 7,68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團體保險, 특히 従業員退職積立保險은 기업의 자금대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경기싸이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

<그림 IV-12> 團體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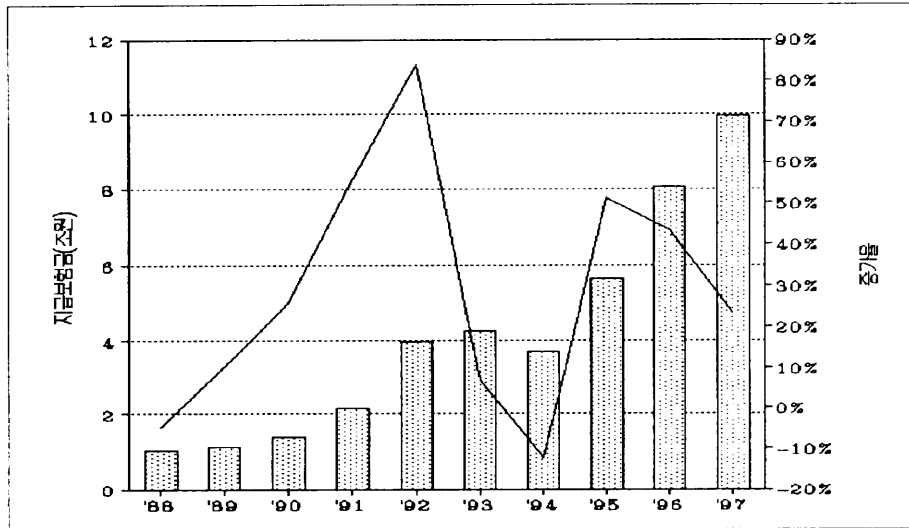


- '97년에는 국내 경기싸이클의 저점이 '97년 하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投資心理 回復, 設備投資 増加등으로 從退保險의 재성장 및 단체보장성보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97년 수입보험료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나) 支給保險金

- FY'97 團體保險 총지급보험금은 9조 9,395억원으로 FY'96 에 비해 23.2%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IV-13> 團體保險 支給保險金 推移



- 부문별로 살펴보면 景氣後退등으로 인한 해약, 실효등 還給금이 27.6% 증가하고, 정리해고제 도입등 고용불안에 따른 퇴직급여금등 保險金은 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96년 總支給保險金은 8조 653억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계속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雇傭市場의 불안, 名譽退職制度 도입등에 따른 퇴직보험금등 보험금 지급 및 景氣後退등으로 인한 환급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3. 損害保險

가. 綜合展望

(1) 收入保險料

- FY'97 損害保險 收入保險料는 國內景氣 부진의 장기화, 크로스보더(Cross-Border)의 추가허용등 保險市場 開放으로 인한 國內의 市場激化 要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부의 社會間 接資本施設(SOC) 擴充, 産業의 고도화에 따른 國民의 保險認知度 向上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9.7% 증가한 16조 3,198억 원에 이를 展望임.

<표 IV-16> 損害保險 收入保險料 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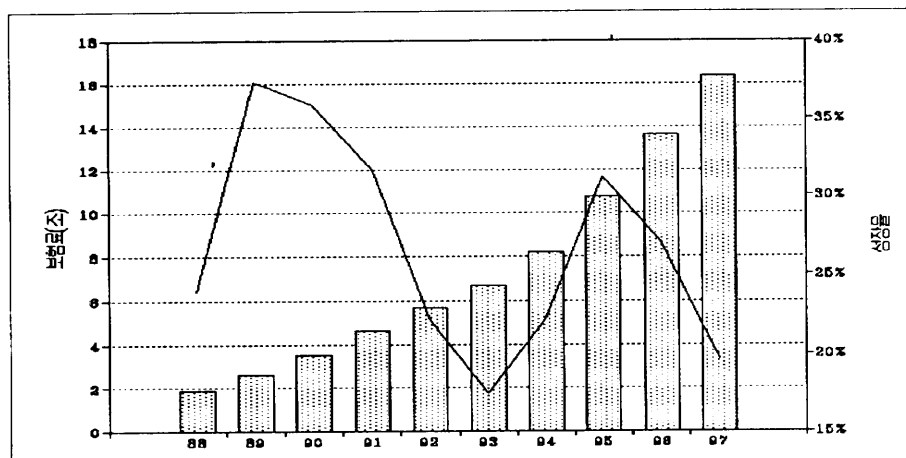
(단위:억원,%)

구 분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보험료	57,082	67,016	81,900	107,409	136,349	163,198
증가율	22.1	17.4	22.2	31.1	26.9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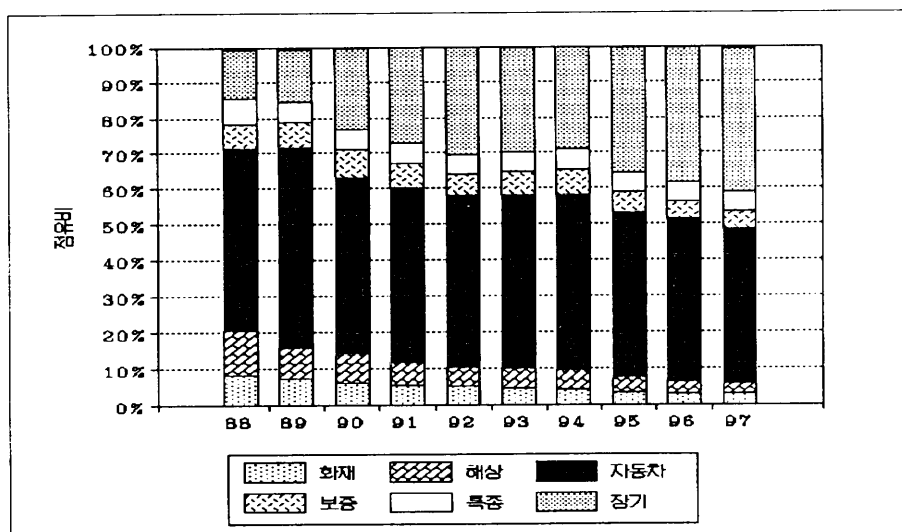
- 自動車保險의 경우 景氣沈滯에 따라 自動車 販賣臺數의 增加勢가 鈍化될 것으로 보이지만, '96년 8월의 保險料 調整 및 制度改善效果 등에 따른 自動車保險의 성장세 지속 및 收支改善이 이루어질 展望임.
- 長期損害保險의 경우 個人年金保險이 타금융권과의 競爭深化로 월평균 성장율이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어 성장율이 다소 鈍化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과세가계장기저축상품등 금리연

동형 상품의 販賣擴大로 인한 長期綜合保險 및 長期傷害保險의 판매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長期損害保險이 損害保險의 成長勢를 主導할 것으로 판단되며, 自動車保險과 함께 두 종목의 시장점유율은 83.5%에 달할 것으로 展望됨.

< 그림 IV-14> 損害保險 收入保險料 增加率 推移



<그림 IV-15> 損害保險 種目別 占有比 推移



- 산업의 高度化 및 專門化에 따라 特種保險分野의 신장세도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賠償責任에 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保險料에 있어서는 保險市場 開放과 價格自由化로 인한 전반적인 競爭深化가 保險料 増加의 沮害要因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保證保險의 경우 경기 하강국면에 따른 긴축경영으로 保險料 성장율이 다소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火災 및 海上保險의 경우 타 家計性保險에 비해 新規保險需要가 적어 점유율이 계속하여 낮아질 것으로 展望됨.

<표 IV-17> 自動車, 長期保險의 成長率 및 占有率 推移

(단위: 억원, %)

구 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자동차	점유비	48.3	47.4	48.3	48.5	45.5	44.9	42.9
	증가율	19.2	19.9	19.5	22.8	23.0	25.3	14.3
장 기	점유비	27.0	30.3	29.7	28.7	35.2	38.1	40.6
	증가율	55.3	36.8	15.1	18.4	60.2	37.6	27.5

(2) 保險收支의 小幅改善

- 그동안 손보사 經營收支 惡化의 주요인이었던 自動車保險의 收支가 다소 改善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 침체 및 일부 종목의 價格競爭 심화에 따른 保險料減少와 保證保險의 收支 惡化로 인하여 전체적인 營業收支는 소폭 개선에 그칠 展望임.

- 自動車保險의 경우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과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가 예상되어 그동안 지속되어온 큰 폭의 영업적자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保險原價(喪失收益額, 治療費, 修理費 등)의 상승, 保險金 지급기준 인상등 營業收支 악화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표 IV-18> 損害保險 營業實績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보유경과 보험료	손해액	손해율	사업비	보험영업 이익
FY'91	40,495	33,938	83.8	10,404	-4,200
FY'92	51,932	46,895	90.3	12,319	-7,307
FY'93	62,873	58,434	92.9	14,335	-9,312
FY'94	75,340	65,174	86.5	17,835	-8,010
FY'95	98,392	79,571	80.9	23,413	-6,901
'96.4-8	47,775	38,219	80.0	12,173	-2,616
('95.4-8)	(36,033)	(30,408)	(84.4)	(8,067)	(-3,391)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1995)」, 「보험조사월보('96.10)」

- '90년대초 큰폭의 保險營業損失로 심각한 經營赤字를 보였던 保證保險의 경우 '93년부터 다소 적자폭이 줄어들었으나 '96년 들어 다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類似保證機關과의 경쟁심화, 국내경기의 불황에 따른 中小企業의 倒産餘波와 少額貸出등 多發事故에 대한 求償權行使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보임.

<표 IV-19> 種目別 保險營業 實績 推移

(단위 : 억원)

연도별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장기
FY'91	51	885	-2,884	-1,187	261	-893
FY'92	70	711	-3,159	-3,134	214	-1,875
FY'93	19	764	-8,061	-880	352	-1,960
FY'94	-96	1,233	-5,239	-892	491	-3,144
FY'95	-14	972	-2,240	-841	575	-3,127
'96.4-8	1	266	-513	-961	351	-1,762

(3) 多様な 商品開發

(가) 保險環境의 變化

- 價格自由化에 따른 市場構造의 變化

- '96년 4월에 제3단계 價格自由化 시행으로 船舶保險 및 企業性 特種保險에 自由料率制를 실시하였고 '97년 4월 부터는 火災, 輸出入 積荷 및 家計性 特種保險分野에까지 自由料率制를 시행할 예정임.
- 價格自由化의 시행으로 標準料率의 범위폭이 확대되고 위험별 수정요건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회사별 料率差別化가 가능해짐.

- 國內 原保險契約의 海外付保 가능

- '93년 1월 輸出積荷, '95년 4월 輸入積荷保險에 原保險의 국경간 거래(Cross-Border)가 허용되었고, '97년 1월부터는 船

舶保險, 長期傷害保險, 海外旅行保險 및 生命保險에도 허용될
예정으로 있어 國內外的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계약 유치 競
爭이 심화될 展望임.

- 대형 우량물건의 국내부보 유치를 위한 料率過當競爭으로 관
련 保險分野의 保險料 감소가 예상됨.

(나) 新種危險 關聯 商品開發의 活性化

- 최근 사회적으로 다기화한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
는 保險契約者の 다양한 요구와 자유경쟁체제하의 保險事業
者들의 적극적인 영업활성화정책 추진으로 新商品 開發이 활
성화될 展望임.
- 산업사회의 多岐化・高度化로 인한 新種危險의 出現 및 각
계층별로 다양한 保險需要가 창출되고 있어 特種保險商品의
대중화가 진행되고 각종 신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임.
- 건축사, 회계사등 전문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賠償責任保險,
環境汚染을 담보하는 保險, 製造物責任法の 立法化推進에 따
른 生産物賠償責任保險 및 知的所有權을 대상으로 하는 賠償
責任保險 등.
- 醫療保障型 商品, 실버형 상품, 레저 및 스포츠활동 危險擔保
商品.
- 주문형 보험증권(Tailor Made Policy)에 대한 계약자의 수요,
다양한 위험의 패키지(Package)화에 부응하는 新商品의 개발
은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와 손보산업의 市場構

造 및 새로운 保險市場 개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개호보험, 貯蓄性保險, SOC 및 KEDO 관련상품 등

(4) 資産運用 環境變化

- OECD가입과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의 추세에 따라 손보사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운용전략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94년 도입된 損害保險 個人年金에 이어 '96년 10월 全金融圈에 非課稅長期家計貯蓄의 시행으로 수익율을 둘러싼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가일층 격화될 展望임.
- 이와 같은 資産運用環境의 변화에 따라 資産運用收益率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축과 투자대상의 다양화 및 投資技法의 先進化 노력이 한층 중요해 질 展望임.
- 契約者貸出制度의 폐지에 따라 일반 대출대상이 확대되어 그 비중이 커질 것이나, 개인대출시장의 한계로 채권시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資本市場 開放, 非課稅 證券貯蓄 시행 및 外國人 投資限度擴大에 따라 株式市場의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어 자산운용수익률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 保險社에 대한 콜머니 허용에 따라 資金借入의 폭이 확대되고 資金運用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自律運用資産制度를 이용한 株價指數先物 등 派生商品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投資對象이 多様化될 것으로 보임.

나. 損害保險 種目別 展望

(1) 火災保險

(가) 保險料

- FY'97 收入保險料는 住宅建設景氣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自由料率로의 移行 및 火災保險 物件의 財産綜合保險으로의 이전 등에 따라 保險料 성장율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4,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展望됨.
- 住宅物件 및 一般物件은 건설경기 촉진과 신도시개발의 지속 추진으로 예년의 성장율을 유지할 것임.
- 工場物件은 석유화학공장 등 대형물건이 財産綜合保險으로 전환되는 등의 요인에 의해 低成長趨勢를 보일 것임.
- 倉庫物件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세화물의 담보중복(積荷保險) 및 營業賠償責任保險(창고업자특약) 등으로서의 전환 등으로 당분간 低成長趨勢가 지속될 展望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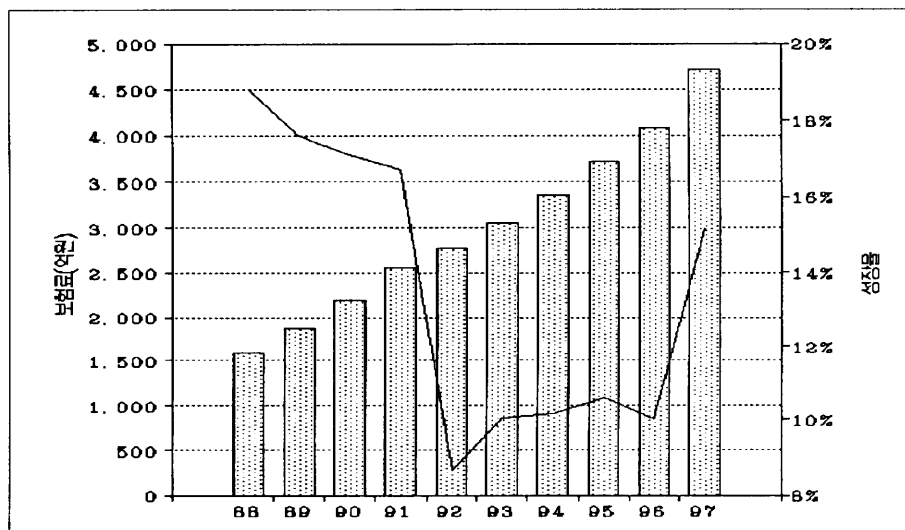
<표 IV-20> 火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억원,%)

구분 \ 연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2,551	2,772	3,051	3,361	3,718	4,090	4,711
증 가 율	16.7	8.7	10.1	10.2	10.6	10.0	15.2

- 火災保險의 FY'95 收入保險料는 3,718억원으로 損害保險 전체시장의 3.5%의 占有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성장율은 10.6%에 그치고 있음.

<그림 IV-16> 火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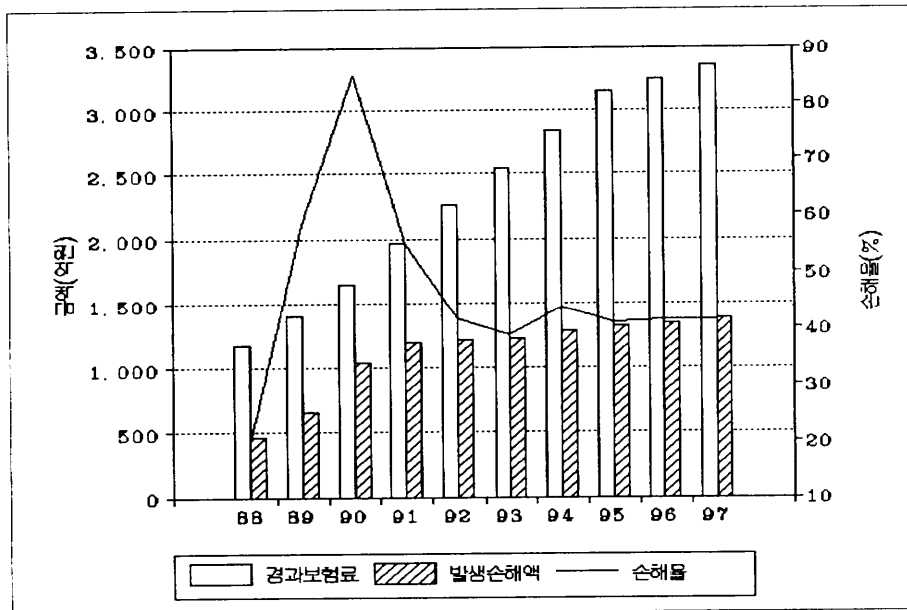
- 기업성 물건의 경우 既存 火災保險契約의 PAR(Property All Risks) 및 Package Insurance Policy로의 전환이 대형물건을 중심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展望됨.
- 고액계약자의 料率引下壓力, 保險社間 유치경쟁으로 海外再保險者와 保險條件 협의가 가능한 PAR증권 선호추세가 계속 됨.
- 빈번한 大型事故로 海外再保險 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한 석유 화학공장, 면방직공장등 特殊危險物件은 계약자의 위험관리 강화 및 自己負擔額(deductible) 인상 등으로 실적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나 당분간 海外再保險 출재가 어려울 것으로 展望됨.

(나) 損害率 推移

- FY'95의 經過損害率は 40.8%로서 전년도보다 3%p 改善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개년(FY'91-FY'95)의 損害率は 43.4%로서 豫定損害率 51.4%에 못미치는 安定된 實績을 보이고 있음.

<그림 IV-17> 火災保險 損害率 推移



주) FY'96, FY'97손해율은 5개년 가중이동평균법에 의한 추세임(이하 동일).

- 이는 최근 3개년간의 實績好轉에 의한 것으로 火災保險 실적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風水災 損害 및 대형화재사고가

줄어든데 기인함.

- 따라서, 계약인수를 위한 料率競争 등이 배제된다면 長期的으로 火災保險은 防災技術의 發達 및 自然災害에 對處하는 技術水準의 向上으로 50% 수준의 안정적인 損害率을 유지할 展望임.

(다) 保險收支

- '95년의 範圍料率 導入(범위폭±5%), '97년의 自由料率 제도 이행 등 價格自由化의 영향으로 대형물건을 중심으로 각사의 인수경쟁이 심화되어 營業收支는 점차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再保險 출재 등의 부수적인 특수성으로 營業收支 악화정도는 일정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展望됨.

<표 IV-21> 火災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보유경과 보 험 료	손해액	손해율	사업비	사업 비율	합산 비율	보험영 업이익
FY'91	1,818	920	50.6	846	44.3	94.9	51
FY'92	1,912	868	45.4	974	49.2	94.6	70
FY'93	2,103	1,007	47.9	1,077	48.7	96.6	19
FY'94	2,338	1,333	55.8	1,150	44.8	100.6	-96
FY'95	2,703	1,318	48.8	1,399	50.5	99.3	-14
'96.4-8	1,166	605	51.9	560	46.6	98.5	1

(2) 海上保險

(가) 保險料

- FY'97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8.4% 증가한 5,048억원으로 損害保險市場 內 占有率은 3.1%로 하락할 展望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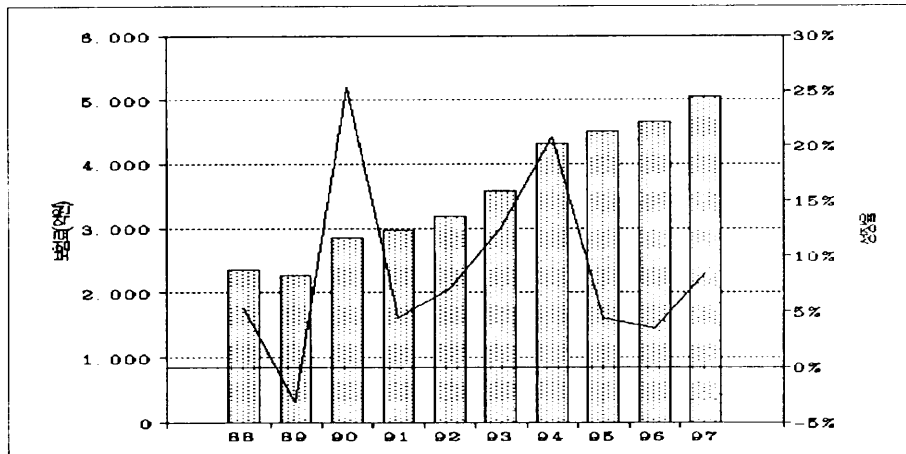
<표 IV-22> 海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억원,%)

연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2,969	3,176	3,571	4,313	4,503	4,656	5,048
증가율	4.4	7.0	12.4	20.8	4.4	3.4	8.4

주 : 항공보험 포함 실적임

<그림 IV-18> 海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경기침체 및 경제성장을 鈍化 예상으로 수출·수입물동량 증가 및 항공보험의 신규수요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선박보험 크로스보더 허용으로 인한 대형 계약자들의 해외유출이 확대되며, 적하보험 自由料率制의 시행에 따라 料率引下 및 料率競争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 船舶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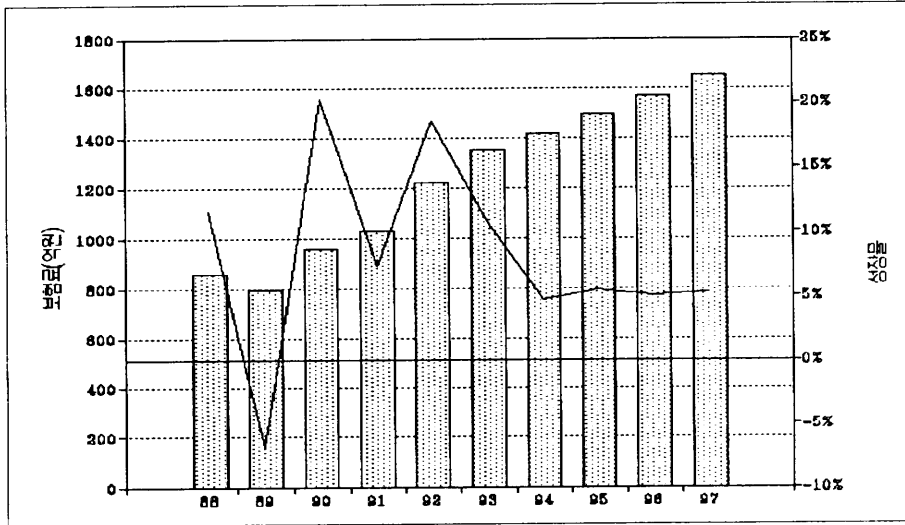
- 유조선, 광탄선 및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한 노후선 대체 본격화, 국내선단의 대형화·현대화 추세 지속, 국·내외 建造船舶의 주문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장격화 요인으로 인하여 FY'97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1,651억원을 기록할 展望.
-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외항선사들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대 대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운업체들의 대형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보유 선박량 증대 및 척당 평균 톤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표 IV-23> 船舶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억원,%)

연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E)	FY'97(P)
수입보험료	1,030	1,220	1,352	1,415	1,493	1,567	1,651
증가율	7.3	18.5	10.8	4.7	5.5	5.0	5.3

<그림 IV-19> 船舶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96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500톤미만 船舶保險의 自由料率導入과 500톤이상 船舶의 再保險自由化 및 '97년 1월부터 허용되는 Cross-Border는 保險料 증가를 鈍化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2) 積荷保險

- FY'97 收入保險料는 自由料率制 도입 및 料率競爭의 심화,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감소, 國內 브로커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의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料率引下 및 自由料率제 도입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순수 물동량 증감분만을 고려하는 경우 전년 대비 8.0% 증가한 2,32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展望됨.

<표 IV-24> 積荷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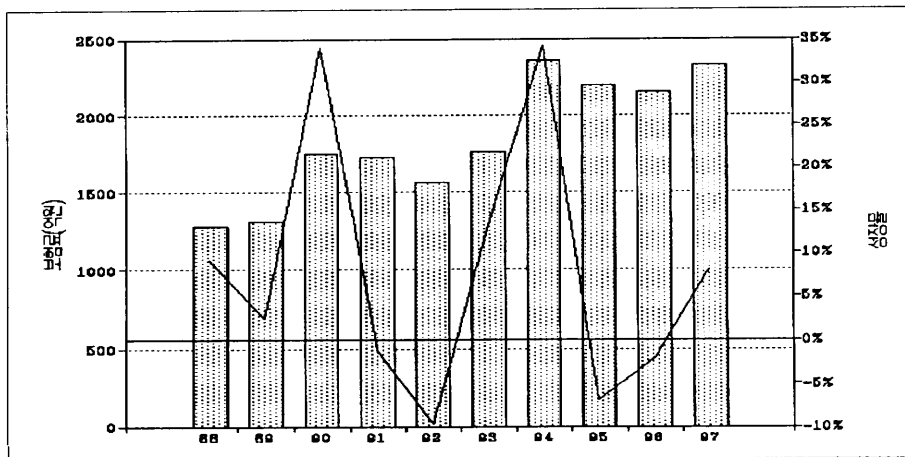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연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구분	수출	보험료	411	420	456	586	591	616	655
	적하	증가율	16.8	2.1	8.6	28.4	0.9	4.3	6.2
수입	수출	보험료	1,317	1,141	1,303	1,774	1,606	1,537	1,671
	적하 ¹⁾	증가율	-5.8	-13.3	14.2	36.2	-9.5	-4.3	8.7
계	수출	보험료	1,728	1,561	1,759	2,360	2,197	2,153	2,326
	적하	증가율	-1.3	-9.7	12.7	34.2	-6.9	-2.0	8.0

주 : 1) 수입적하보험의 실적에는 어획물보험, 컨테이너보험등의 실적이 포함됨.

2) FY'97전망은 정기적 요율조정효과 및 자유요율제 도입에 따른 효과 미반영 수치임.

<그림 IV-20> 積荷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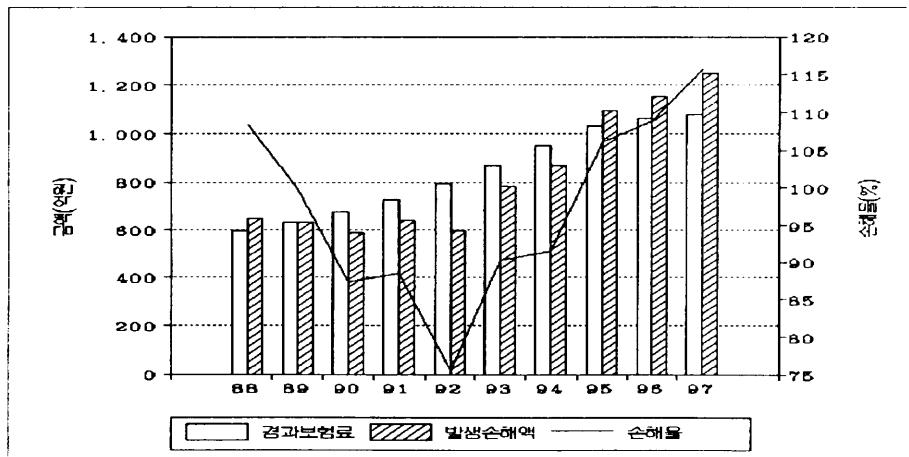
- FY'95에는 輸出入 物動量의 큰폭의 증가(33.1%)에도 불구하고 保險料가 마이너스 成長을 보인 것은 '95년 4월의 範圍料率制 도입(±10%), 8월16일의 料率引下 및 포괄보험 범위확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크로스보더로 인한 保險料의 海外流出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損害率 推移

1) 船舶保險

- FY'95의 損害率은 전년대비 29.9%p상승한 99.7%의 높은 損害率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5개년 (FY'91~FY'95)의 平均損害率은 77.3%로 豫定損害率(75%)을 약간 上廻하고 있으며, 향후 동 보험의 손해율은 Cross-Border 허용 등으로 市場競爭이 深化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다소 높아질 展望임.

<그림 IV-21> 船舶保險 損害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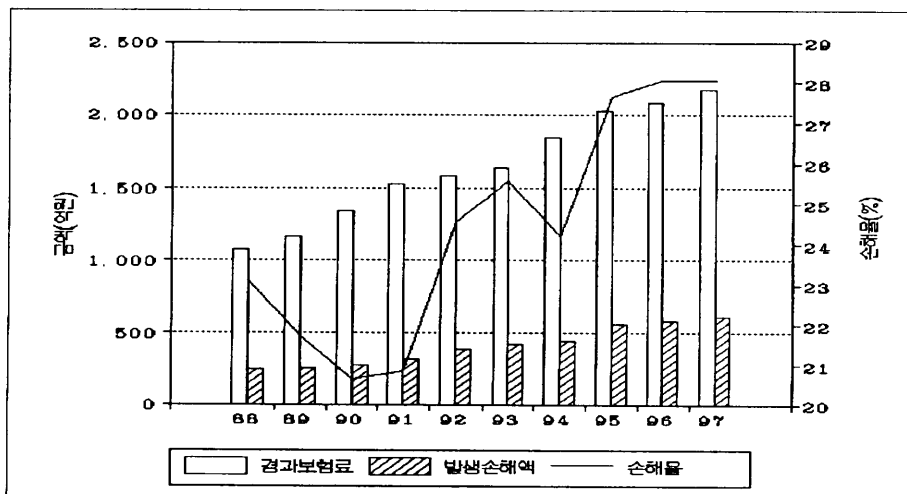


- 船舶保險은 일반 家計性 保險과는 달리 그 특성상 事故發生頻度는 낮으나 平均 支給保險金이 매우 크기 때문에 損害率은 항상 不安定要因을 내포하고 있음.

2) 積荷保險

- FY'95의 損害率은 전년도(21.0%) 대비 12.6%p 증가한 33.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FY'97의 自由料率制 시행('97년4월)에 따라 保險會社間 料率引下競爭이 더욱 深化될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損害率에 있어서 상당히 上昇할 展望임.

<그림 IV-22> 積荷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收支

- 海上保險은 500톤미만 船舶保險의 自由料率 적용, 積荷保險의 自由料率制 도입('97년4월), 船舶保險의 크로스보더 許容('97년 1월) 등의 影響을 받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동안의 營業黑字幅은 점차 감소될 展望임.

<표 IV-25> 海上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보유경과 보 험 료	손해액	손해율	사업비	사업 비율	합산 비율	보험영업 이 익
FY'91	2,181	724	33.2	572	26.8	60.0	885
FY'92	2,015	679	33.7	625	31.0	64.7	711
FY'93	2,145	721	33.6	660	29.4	63.0	764
FY'94	2,734	765	28.0	735	25.3	53.3	1,233
FY'95	2,921	1,049	35.9	901	32.1	68.0	972
'96.4-8	1,134	464	40.9	404	35.2	76.1	266

- 특히 그동안 주로 營業黑字 種目이었던 積荷保險은 價格自由化 推進에 따른 持續的인 料率引下 및 制度改善, 國內社 間의 引受競争 深化와 크로스보더 許容을 통한 海外保險者에의 원보험가입 등으로 保險料 增加率이 큰폭으로 鈍化되고 있어 海上保險 分野의 收支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임.

(3) 自動車保險

(가) 保險料

- FY'96 收入保險料는 '95년 8월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의 영향에 따라 전년대비 25.3% 증가한 6조 1,246억원으로 예상되며, FY'97 收入保險料는 자동차 대수 증가율의 鈍化에 따라 전년대비 14.3% 증가한 6조 9,991억원으로 예상됨.

<표 IV-26> 自動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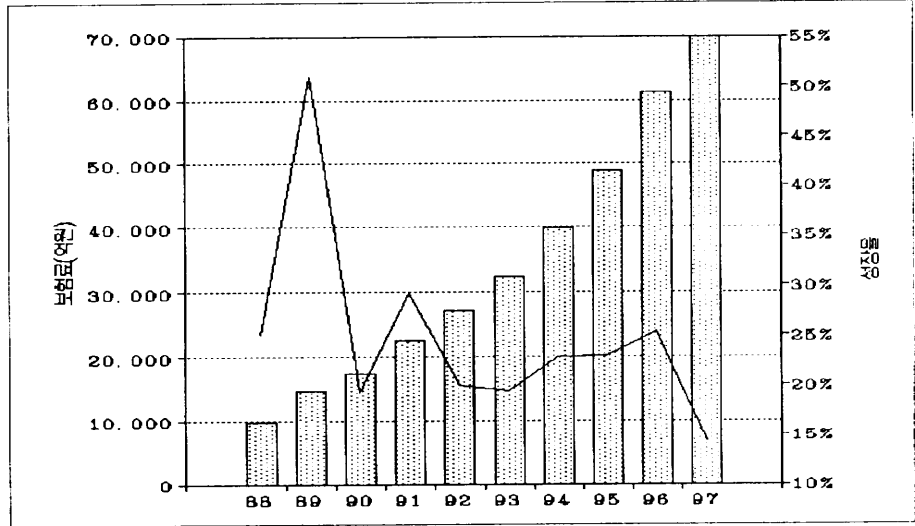
(단위:억원,%)

연 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구 분	책임보험	4,931	5,055	6,696	10,958	13,134	19,395	22,254
	증가율	25.9	2.5	32.5	63.6	19.9	47.7	14.7
종합보험	보험료	17,566	21,934	25,550	28,673	35,630	41,717	47,590
	증가율	30.3	24.9	16.5	12.2	24.3	17.1	14.1
기타 ¹⁾	보험료	84	93	113	119	122	134	147
	증가율	12.0	10.7	21.5	5.3	2.5	9.8	9.7
합계	보험료	22,581	27,082	32,358	39,751	48,886	61,246	69,991
	증가율	29.2	19.9	19.5	22.8	23.0	25.3	14.3

주 : 1) 기타보험에는 운전자보험, 외화표시종합보험, 취급업자종합보험, 오토바이종합보험이 포함됨.

- '96년말 및 '97년말 自動車 保有臺數는 각각 951만대, 1천56만대로 전년대비 12.3%, 11.0%의 증가가 예상되며 자동차 대수 증가율은 대도시의 열악한 도로사정과 政府의 自動車保有 抑制策으로 점차 鈍化될 展望임.

<그림 IV-23> 自動車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표 IV-27> 自動車保有臺數 推移

(단위 : 천대, %)

구 분 \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E)	1997(E)
자동차보유대수	4,248	5,231	6,274	7,404	8,469	9,510	10,556
전년대비증가율	25.1	23.1	19.9	18.0	14.4	12.3	11.0

주 : '95, '96년 보유대수는 기아경제연구소의 전망치임.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95.

기아경제연구소, 「'96 자동차산업전망」, 1995.

- 行政刷新委員會의 연구과제인 “交通事故 處理體系 및 制度의 改善方案”에 일정수준 이상의 대물배상을 自動車保險 強制加入部分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대물배상의 의무가 입화에 따른 保險料의 증대효과가 나타날 展望임.

- 交通環境, 社會環境의 변화에 따른 위험실태의 변동을 반영하고 다양한 소비자 니드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料率體系의 개선을 포함한 각종 制度改善策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展望임.
- '96년 8월부터 自動車保險 3段階 價格自由化로 基本保險料에 範圍料率이 도입됨에 따라 손보사에서는 기존의 一律的인 契約慣行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의 인수와 제도의 개선이 예상되며 또한 責任保險에도 할인할증율과 保險加入經歷 料率이 도입되어 保險加入者의 사고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인 保險料 적용이 가능하게 됨.

<표 IV-28> 自動車保險 訴訟提起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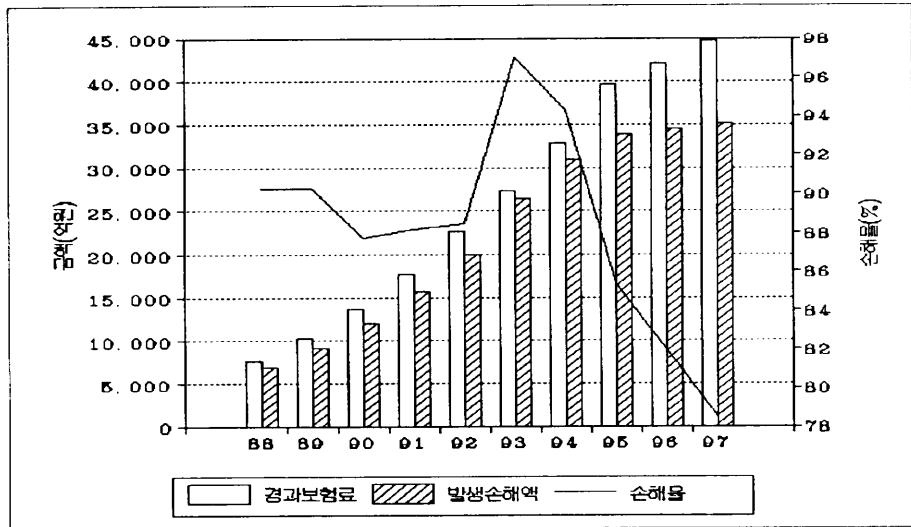
피해자수		피해자 수(명)	소송제기 건수(건)	소송제기 율(%)	건당판결액 (백만원)(A)	건당지급기준액 (백만원)(B)	A/B
FY'93		307,755	8,638	2.81	44	20	2.18
FY'94		286,840	9,830	3.43	55	25	2.18
FY'95		248,592	8,523	3.43	57	24	2.34
증감율 (%)	'94	-6.8	123.8	0.62	25.0	25.0	-
	'95	-13.3	-13.3	0.0	3.6	-4.0	-

- 事故多發者, 교통법규위반자 및 低年齡運轉者에 대한 保險料 차별화 등 危險度에 상응한 계약인수의 강화.
- '96년 8월 1일 自動車保險 制度改善時 保險金 지급기준을 대폭 현실화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였고 責任保險 보상한도를 '97년 8월부터 사망/부상/후유장해 기준 6,000/1,500/6,000만원으로 상향 調整됨.

(나) 損害率 推移

- '96년 및 '97년의 損害率은 '95년 8월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에 따른 保險料 増加效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사고발생율이 감소하는 등 하락요인이 많으나, '96년 8월의 지급기준인상 및 임금, 물가등 保險金 原價의 상승요인이 남아 있어 74%선을 유지할 것으로 展望됨.

<그림 IV-24> 自動車保險 損害率 推移



- FY'95의 損害率은 事故發生率의 감소와 '95년 8월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의 영향에 따라 전년의 90.4%에 비해 11.9%(p)감소한 78.5%를 나타냈으나 豫定損害率 72.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責任保險의 損害率은 FY'95에 64.3%로 전년대비 2.3%p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고발생율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 한편 任意保險의 경우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의 영향에 따라 전년의 損害率에 비해 15.0%p 감소한 83.7%를 나타내었음

(다) 保險收支

- '95년 8월 制度改善 및 料率調整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自動車保險 收支는 상당히 개선될 展望이나 保險金 증가요인도 적지않게 常存하고 있음.

<표 IV-29> 自動車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보유경과 보 험 료	손해액	손해율	사업비	사업비율	합산비율	보험영업 이 익
FY'91	20,527	18,273	89.0	5,139	22.8	111.8	-2,884
FY'92	25,929	23,142	89.3	5,946	22.0	111.3	-3,159
FY'93	30,397	31,550	103.8	6,908	21.4	125.2	-8,061
FY'94	36,712	33,464	91.2	8,488	21.4	112.6	-5,239
FY'95	44,494	35,331	79.4	11,404	23.4	102.8	-2,240
'96.4-8	21,943	16,171	73.7	6,285	25.7	99.4	-513

(4) 保證保險

(가) 保險料

- FY'97 收入保險料는 國內景氣가 하강국면을 서서히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信用社會의 定着 및 環境變化에 대응한 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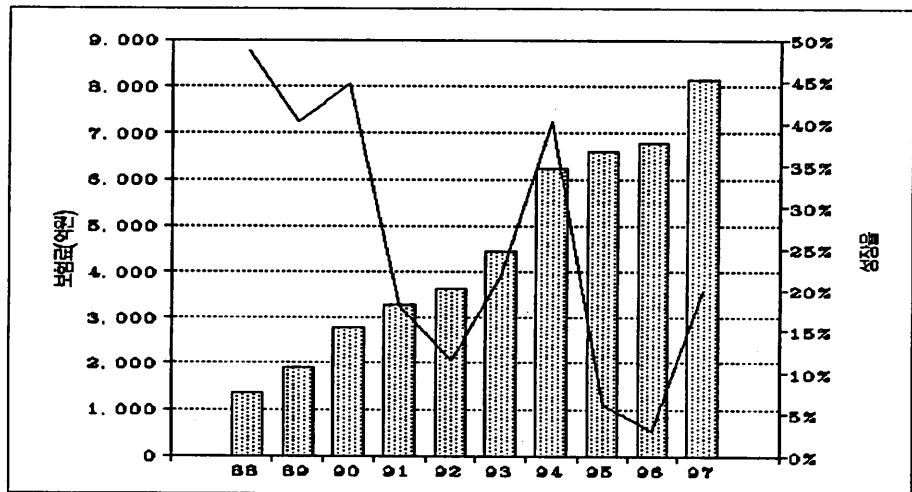
種商品の開發에 따른 保證 수요의 증가로 전년 대비 19.8% 상승한 8,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展望됨.

<표 IV-30> 保證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3,271	3,646	4,436	6,221	6,601	6,791	8,135
증가율	18.0	11.5	21.7	40.2	6.1	2.9	19.8

<그림 IV-25> 保證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최근 保證保險市場은 割賦販賣保證(2,114억, FY'95 전체의 32%), 少額貸出保證(1,611억, FY'95 전체의 22.9%)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割賦販賣保證保險의 경우 자동차 내수시장 정세에 따른 수신감소와 자동차 판매자나 할부금융사의 신용에 의한 할부판매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성장세가 완만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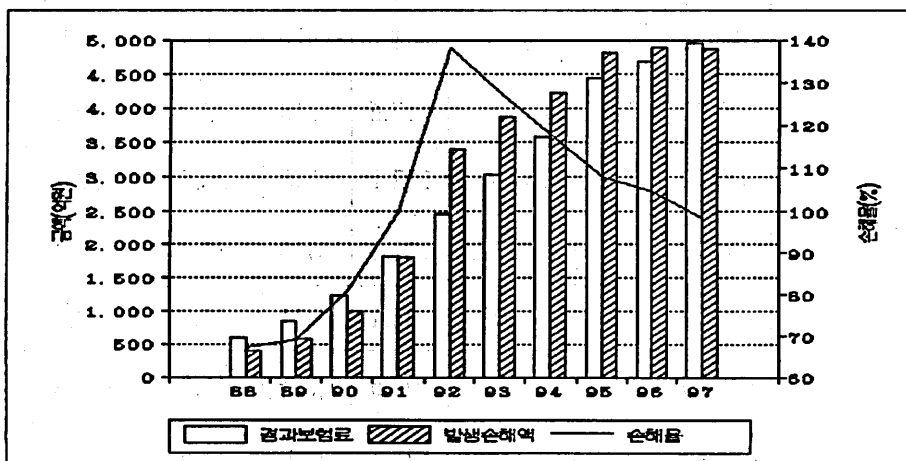
것으로 예상되며 少額貸出保證의 경우도 損害率 惡化 및 引受條件의 강화 등이 반영되어 성장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展望됨.

- 한편, 保證保險市場에서 꾸준히 자리를 잡고 있는 履行保證保險(1,560억, FY'95전체의 23.6%)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와 건설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예년과 유사한 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展望됨.

(나) 損害率 推移

- FY'95의 損害率은 97.1%로 FY'93의 104.5%, FY'94의 99.8%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FY'96, FY'97에는 경기부진에 따른 保險料 增加勢 鈍化와 사고다발로 損害率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조건의 선별과 경기부양책 여하에 따라서는 안정된 損害率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IV-26> 保證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收支

- 景氣變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保證保險은 경기차별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대적 불황과 매출액비중이 큰 소액대출, 割賦金融保證 등의 保險料 성장세 鈍化 및 경기부진에 따른 사고다발로 營業收支의 급격한 호전은 어려울것으로 보임.
- 동 保險은 '90년대초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심각한 영업손실 (FY'91 : -1,187억, FY'92 : -3,134억)을 보인 후 FY'95에는 적자폭 감소(-841억) 조짐을 보인 바 있으나 '96년 들어 다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 영업적자는 주로 어음지급보증, 사채보증, 리스보증등 기업체 관련 金融保證에 기인한데 비해 현재의 적자는 주로 소액대출, 할부금융등 가계성자금의 사고가 다발하는데 기인하고 있어 향후 미수채권구상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으로 보임.

<표 IV-31> 保證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보유경과 보 험 료	손해액	손해율	사업비	사업비율	합산비율	보험영업 이 익
FY'91	2,659	3,128	117.6	718	22.2	139.8	-1,187
FY'92	3,322	52,716	172.1	740	20.6	192.7	-3,134
FY'93	3,680	3,721	101.1	839	19.2	120.3	-880
FY'94	4,168	4,089	98.1	971	15.8	113.9	-892
FY'95	5,771	5,514	95.5	1,098	16.8	112.3	-841
'96.4-8	2,484	3,082	124.1	364	14.5	138.6	-961

(5) 特種保險

(가) 保險料

- FY'97년 收入保險料는 국내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賠償責任保險商品의 수요증가,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保險加入 義務化 擴大, 海外旅行保險을 비롯한 傷害保險의 지속적인 성장 등으로 전년대비 19.2% 상승한 9,102 억원을 기록할 展望임.
- 建設工事保險의 확대실시, 유지보수기간의 담보 또는 설계, 감리자의 오류 및 하자 등을 담보하는 保險商品 出現과 製造物責任法의 立法化 대두에 따른 生産物賠償責任保險, 지방화 시대 개막에 따른 地方自治團體 賠償責任保險 등의 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展望.

<표 IV-32> 特種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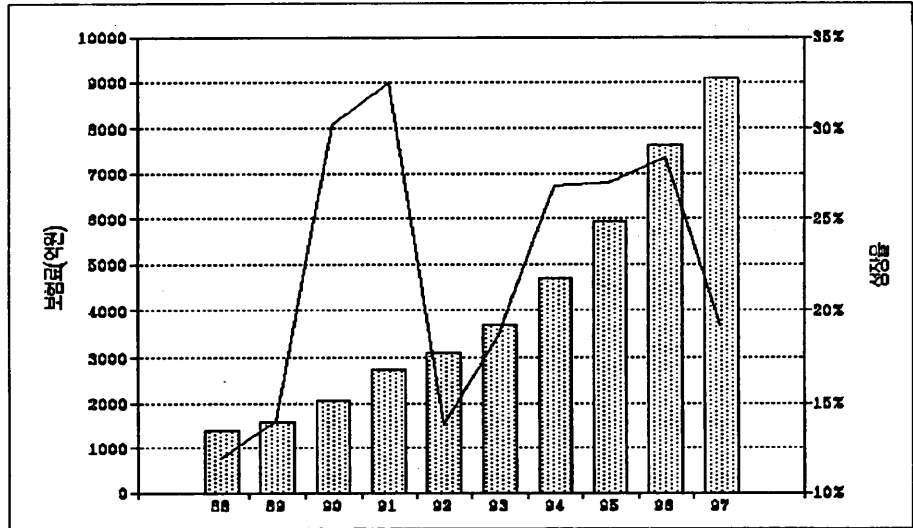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년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¹⁾	2,734	3,111	3,691	4,681	5,946	7,633	9,102
증가율	32.5	13.8	18.7	26.8	27.0	28.4	19.2

주 : 1)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 특종보험(항공보험 제외)의 합산실적임.

- 또한 소득의 증가, 餘暇時間 확대 등에 따른 레포츠 담보보험,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장에 부응한 여성관련 疾病 및 傷害危險擔保 상품개발과 保險加入金額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展望됨.

<그림 IV-27> 特種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1) 技術保險

- FY'97 收入保險料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일정규모이상의 정부발주공사 保險加入義務化, 주택경기 활성화촉진책 등의 주변여건과 손보사의 가입유도 활성화로 전년대비 26.2% 증가한 2,046억원을 기록할 展望임.
- 技術保險은 保險加入率이 저조하여 손보시장에서의 비중은 극히 미미(FY'95 기준 손보시장의 1.0%점유)하나 거대한 잠재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市場開拓 努力에 따라 展望値 보다 높은 증가율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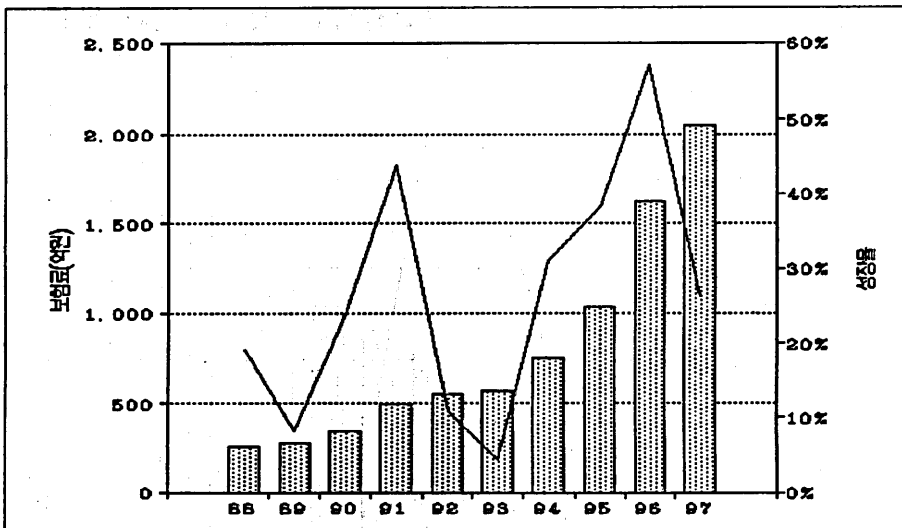
<표 IV-33> 技術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억원, %)

구분 \ 연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493	547	570	747	1,032	1,621	2,046
증가율	43.8	10.8	4.4	30.9	38.2	57.1	26.2

-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建設工事保險 加入義務化, 잇따른 大型事故로 인해 建設工事保險에 대한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保險必要性 擴散으로 建設工事保險의 고성장기 기대됨.

<그림 IV-28> 技術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2) 賠償責任保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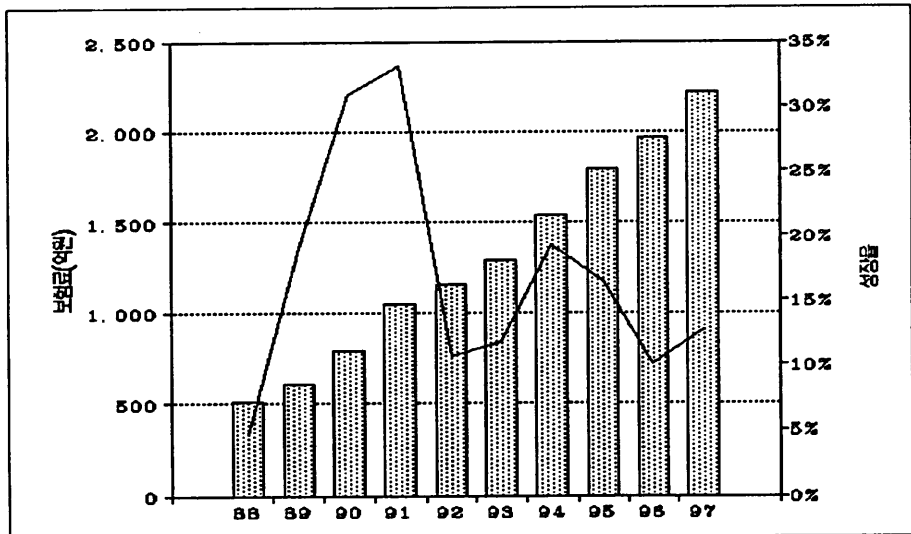
- FY'97 收入保險料는 산업사회로의 진입가속화, 잇따른 대형 사고에 의한 賠償責任保險의 역할부각, 국민의 權利意識 高揚 등으로 賠償責任保險의 수요가 꾸준한 增加勢를 보여 전년대비 12.6% 증가한 2,218억원을 기록할 展望임.

<표 IV-34> 賠償責任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1,045	1,156	1,290	1,539	1,791	1,970	2,218
증가율	33.1	10.6	11.6	19.3	16.4	10.0	12.6

<그림 IV-29> 賠償責任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環境賠償保險, 生産物賠償, 지방자치단체배상등 新商品의 개발노력도 加速化되어 '96년이후의 潛在成長率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展望됨.
-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및 이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醫師賠償責任保險의 수요가 예상되고 기타 專門職賠償責任保險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수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

3) 傷害保險

- FY'97 傷害保險 收入保險料는 海外旅行保險의 지속적증가와 각종사고에 대비한 개인의 保障性保險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16.4% 증가한 691억원을 기록할 展望임.

<표 IV-35> 傷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5(P)	FY'96(E)
수입보험료	244	242	307	435	502	593	691
증가율	14.6	-0.1	26.7	41.9	15.4	18.2	16.4

- 기업의 세계화추진으로 인한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확대, 소득증가에 따른 해외여행의 보편화로 海外旅行保險의 수요가 급증하는데다 保險加入金額 역시 고액화하고 있어 保險料 增加率이 여행자수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음.

<표 IV-36> 海外旅行者數와 保險料 增加率推移

(단위 : 천명,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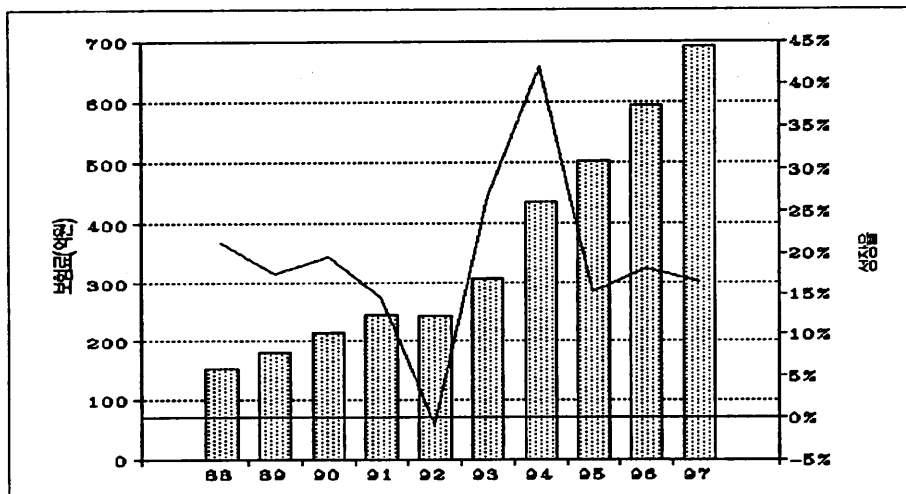
구 분	'91	'92	'93	'94	'95	평균
여행자수 ¹⁾	1,856	2,043	2,420	3,154	3,819	2,658
증가율	18.9	10.1	18.5	30.3	21.1	19.8
보험료	6,291	6,093	8,564	12,756	18,438	10,428
증가율	41.4	-3.1	40.5	49.0	44.5	34.5

주 : 1) 여행자수는 CY기준이며 보험료는 FY기준임.

자료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1996,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 1996.

- 레포츠 담보위험,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신장에 부응한 女性關聯 疾病 및 傷害危險擔保 상품의 판매호조,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하는 團體傷害保險의 개발이 지속될 展望.

<그림 IV-30> 傷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4) 綜合保險

- FY'97 收入保險料는 비중이 큰 動産綜合保險과 財産綜合保險의 지속적인 판매호조를 바탕으로 전년대비 21.3%가 상승한 3,380억원을 기록할 展望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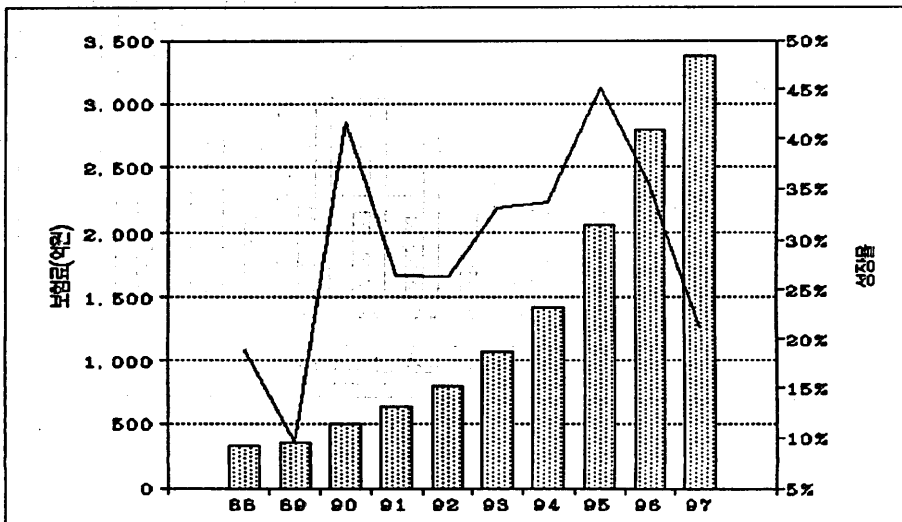
<표 IV-37> 綜合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631	797	1,062	1,418	2,058	2,787	3,380
증가율	26.5	26.3	33.2	33.5	45.1	35.4	21.3

- 근래 石油化學 및 綿紡織物件의 海外再保險加入이 어려워짐에 따라 海外再保險 直去來가 가능한 財産綜合保險이 크게 증가하는 趨勢가 지속됨.

<그림 IV-31> 綜合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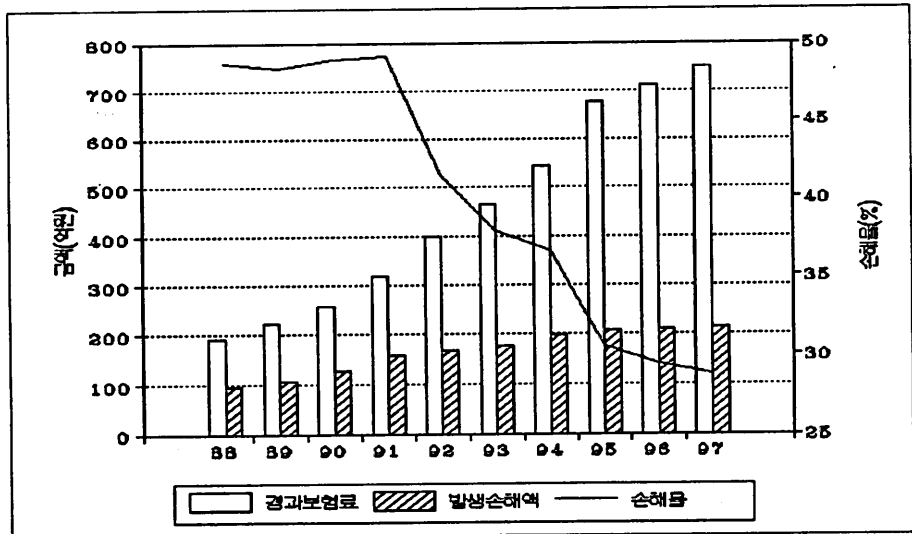
- 이는 財産綜合保險의 引受對象이 대규모 기업성물건이며 他 保險種目에 비해 담보위험이 종합적이고 保險料率이 相對的으로 低廉하여 인수경쟁의 方便으로 활용되고 있는것도 하나의 이유임.

(나) 損害率 推移

1) 技術保險

- FY'95의 損害率은 23.7%, 최근 5개년(FY'91-FY'95)의 平均 損害率은 33.1%로 FY'90이래 40%대의 安定的인 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建設工事保險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FY'96, FY'97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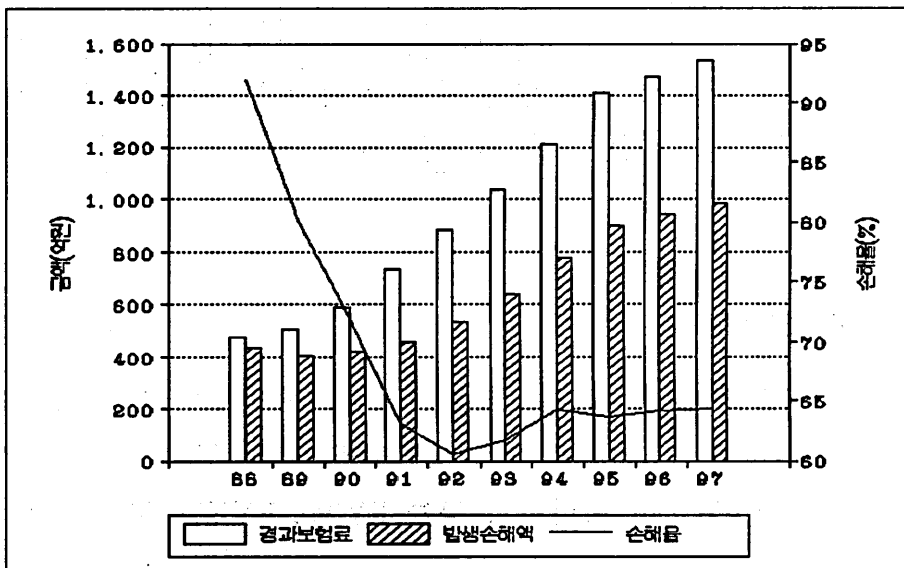
<그림 IV-32> 技術保險 損害率 推移



2) 賠償責任保險

- FY'95의 損害率은 57.4%, 최근 5개년(FY'91-FY'95)의 平均 損害率은 61.2%로 安定的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들어 賠償責任을 둘러싼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배상금액이 고액화 되는 추세임을 감안,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확대가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推進될 豫정으로 있어 향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IV-33> 賠償責任保險 損害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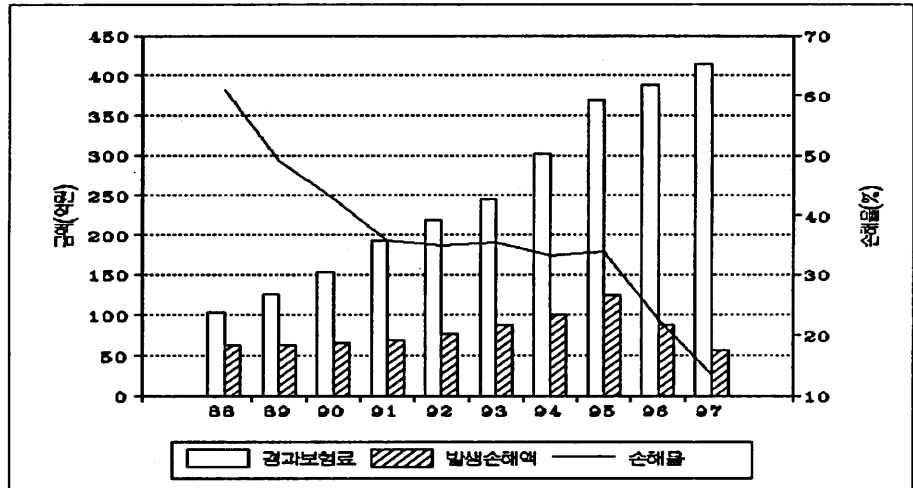


3) 傷害保險

- FY'95의 損害率은 32.6%, 최근 5개년(FY'91-FY'95)의 平均 損害率은 32.8%로서 巨대손해가 없는 傷害保險의 특성상 FY'95, FY'96에도 30%대의 安定된 實績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價格自由化에 따른 손보사간 요율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실적악화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동보험의 손해율은 예정손해율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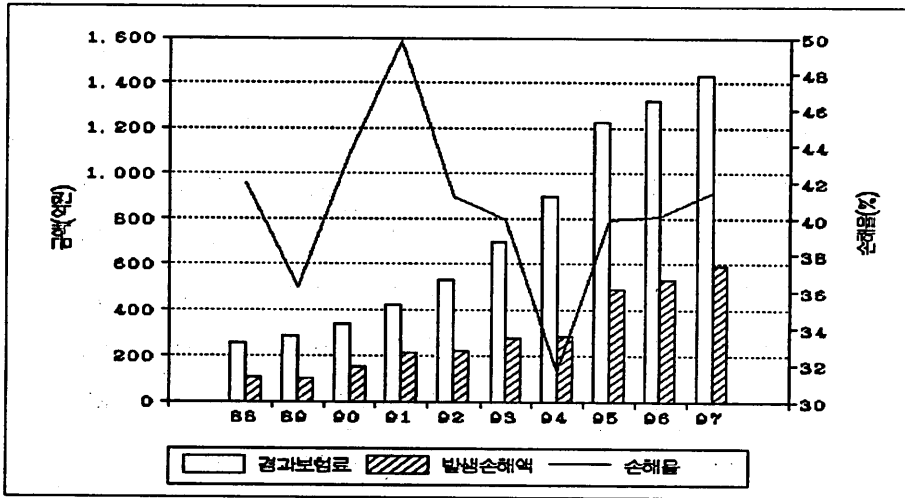
<그림 IV-34> 傷害保險 損害率 推移



4) 綜合保險

- FY'95의 損害率은 51.2%, 최근 5개년(FY'91-FY'95)의 平均 損害率은 39.6%로 豫定損害率(50%)을 下回하는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FY'96, FY'97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住宅商工綜合保險의 損害率이 계속하여 악화(FY'90 : 80.5% → FY'95 : 154.2%)되고 있는 반면, 최근 성장속도가 빨랐던 財産綜合保險은 損害率 變動幅이 컸으나 점차 안정되고 있음.

<그림 IV-35> 綜合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收支

- 自由料率制度가 '96년 4월 1일부터 企業性種目에서 시행됨에 따라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適正料率水準의 算出 및 提供을 위한 기반구축과 계약자 보호대책이 요구되며 동 保險의 潛在成長率이 높아 收支黑字는 當分간 지속될 展望임.

<표 IV-38> 特種保險 事業實績 推移

(단위 : 억원, %)

연 도	보유경과 보 험 료	손해액	손해율	사업비	사업비율	합산비율	보험영업 이 의
FY'91	2,085	1,144	54.9	680	30.4	85.3	261
FY'92	2,393	1,418	59.3	760	30.7	90.0	214
FY'93	2,743	1,595	58.1	797	27.4	85.5	352
FY'94	3,306	1,885	57.0	930	26.0	83.0	491
FY'95	4,144	2,299	55.5	1,270	28.0	83.5	575
'96.4-8	1,969	1,049	53.3	569	26.9	80.2	351

주) 해외원보험 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6) 長期損害保險

(가) 保險料

- 個人年金損害保險의 지속적인 판매와 非課稅家計長期貯蓄商品 등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판매호조로 FY'97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27.5% 증가한 6조 6,211억원으로 손보시장내 占有率 이 40.6%에 이를 展望임.
- '94년 6월부터 판매된 個人年金損害保險은 FY'95 결산실적 이 損保市場의 6.7%(7,163억원)를 점유한데 이어 '96년 8월 현재 3,439억원의 保險料를 거수 손보전체의 6.6%를 점유하 고 있음.
- '96년 10월21일부터 판매된 비과세가계장기저축플러스보험

은 長期損害保險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보험의 실적 증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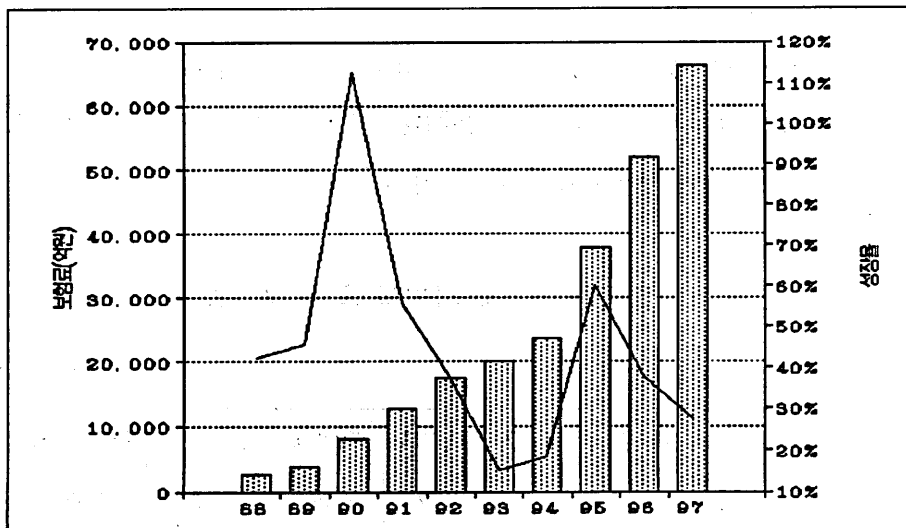
<표 IV-39> 長期損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 연 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¹⁾	12,638	17,293	19,908	23,573	37,755	51,933	66,211
증가율	55.3	36.8	15.1	18.4	60.2	37.6	27.5

주 : 1) FY'94부터는 個人年金실적이 포함됨.

<그림 IV-36> 長期損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 최근들어 金利自由化, 金融所得綜合課稅 및 商品開發基準에 관한 規制緩和등 長期保險 商品價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豫定利率의 差等化, 擔保危險의 多樣化등 商品개발의 活性化를 통하여 商品경쟁력을 제고시키면 長期保險의 需要增加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사회환경의 專門化, 工業化에 따른 신종 리스크의 출현이 예상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 被保險者 集團을 特化(자가용운전자등)하여 패키지로 담보하는 상품,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연령층별 상품 등의 개발이 活性化 될 것임.
- 각 회사별로 기존상품을 보완한 단독상품의 개발 및 개호보험, 所得喪失保險 등 기존 長期保險 販賣擴大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1) 長期火災保險

- FY'97 收入保險料는 전년대비 22.1% 감소한 22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며 長期保險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점차 감소하여 0.4%이하로 떨어질 展望임.

<표 IV-40> 長期火災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구분 \ 연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수입보험료	1,397	1,133	882	648	441	293	228
증가율	-2.5	-18.9	-22.1	-26.5	-31.9	-33.6	-22.2

- 長期火災保險을 보완·대체한 각사의 長期綜合保險 단독상품의 開發·販賣에 따라 長期火災保險의 마이너스(-) 성장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長期火災保險의 保險料 增加率は 1989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1991년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임.
- 이는 각사가 長期火災保險과 담보내용은 같고 滿期還給率을 강화한 長期綜合保險을 獨自的으로 開發·販賣하는데 기인함.

2) 長期傷害保險

- FY'97 收入保險料는 금융형상품 및 運轉者保險등 각사 단독상품의 판매호조로 전년대비 20.0% 증가한 3조 8,320억원에 이를 展望임.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FY'95에 급격하게 성장한 長期傷害保險은 점차 成長率 鈍化現像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도 20%대의 高成長勢를 유지할 것으로 展望됨.

<표 IV-41> 長期傷害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7(E)
보험료	일반	8,519	11,791	13,376	12,972	22,488	31,933	38,320
	연금	-	-	-	3,631	7,163	8,596	9,885
	계	8,519	11,791	13,376	16,603	29,651	40,529	48,205
증가율		88.2	38.4	13.4	24.1	78.6	36.7	18.9

- 個人年金損害保險은 월납 및 3월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保險의 特性上 中途解止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繼續保險料의 지속적 增加가 예상됨.
- 이에 따라 FY'97의 경우 損害保險의 個人年金保險만의 실적 이 1조원대에 이를 展望임.

3) 長期綜合保險

- FY'97 收入保險料는 非課稅 家計長期貯蓄 플러스 保險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0.0% 증가한 1조 7,778억원에 이를 展望임.

<표 IV-42> 長期綜合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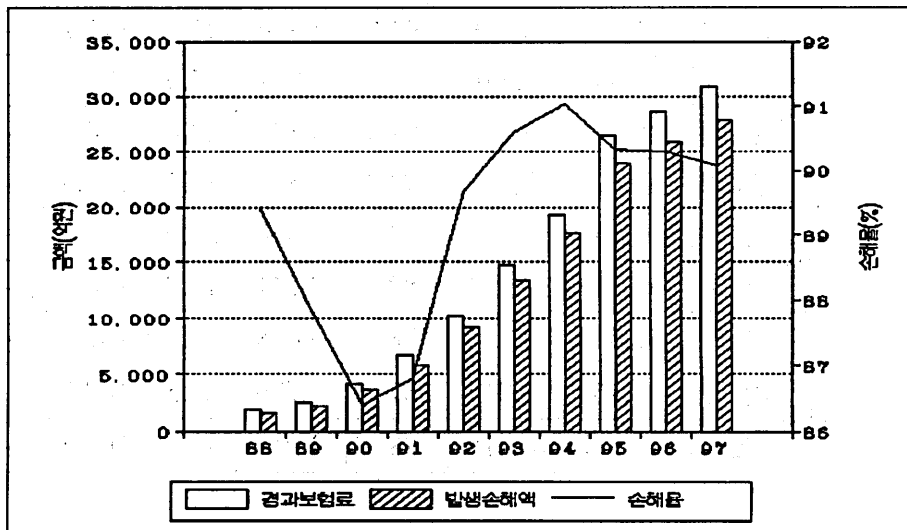
연도 구분	FY'91	FY'92	FY'93	FY'94	FY'95	FY'96(P)	FY'96(E)
수입보험료	2,722	4,369	5,650	6,321	7,663	11,111	17,778
증가율	25.0	60.5	29.3	11.9	21.2	45.0	60.0

- 과거 長期火災保險으로 부보되던 물건이 長期綜合保險으로 轉換됨에 따라 성장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 성격상 중도 해지 발생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플러스보험의 영향으로 향후 큰폭으로 성장할 展望임.

(나) 損害率 推移

- FY'95 損害率은 92.5%로서 최근 4개년(FY'92-FY'95)의 平均 損害率(89.0%)을 상회하여 損害率이 악화되는 추세이나 同期 間の 損害率變化는 10%未滿으로서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長期保險의 屬性上 전체 損害率은 '96, '97에도 90%내외에서 安定될 것으로 보임.

<그림 IV-37> 長期保險 損害率 推移



(다) 保險收支

- 個人年金損害保險의 지속적인 판매 증가 및 비과세가계장기 저축플러스보험의 판매에 따라 전체 收入保險料는 전년도와

유사한 增加勢를 시현할 것이며 保險營業損失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展望임.

<표 IV-43> 長期損害保險 事業實績

(단위: 억원, %)

연 도		보유경과 보 험 료	손해액	손해율	사업비	사업 비율	합산 비율	보험영업 이 익
FY'91		10,808	9,424	87.2	2,276	18.0	105.2	-893
FY'92		15,872	14,678	92.5	3,070	17.8	110.3	-1,875
FY'93		21,258	19,392	91.2	3,826	19.2	110.4	-1,960
FY '94	장기	21,868	20,726	94.8	4,356	21.9	116.7	-3,214
	연금	3,598	2,546	70.8	981	27.0	97.8	70
	소계	25,466	23,272	91.4	5,337	23.0	114.4	-3,144
FY' 95	장기	30,674	28,625	93.3	5,563	18.2	111.5	-3,514
	연금	7,143	5,147	72.0	1,578	22.0	94.0	387
	소계	37,817	33,772	89.3	7,141	18.9	108.2	-3,127
'96. 4-8	장기	15,413	13,704	88.9	3,028	20.8	109.7	-1,499
	연금	3,457	3,014	87.2	706	20.5	107.7	-263
	소계	18,870	16,718	88.6	3,914	20.8	109.4	-1,762

- 한편 同保險의 해지환급금은 FY'95까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FY'96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IV-44> 長期保險 解止 및 滿期還給金 推移

(단위 : 억원, %)

구 분	FY'91	FY'92	FY'93	FY'94	FY'95	'96.3-8
해지환급금 (증가율)	4,243 (200.0)	7,797 (83.8)	10,957 (40.5)	10,756 (-1.8)	8,617 (-19.9)	4,175 (27.1)
만기환급금 (증가율)	1,706 (33.0)	2,384 (39.8)	4,156 (74.3)	5,166 (24.3)	6,937 (34.3)	3,095 (24.8)
합계 (증가율)	5,948 (120.6)	10,181 (71.2)	15,113 (48.4)	15,922 (5.4)	15,554 (-2.3)	7,270 (28.2)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V. 保險產業 主要 推進課題

1. 保險產業 一般

OECD 加入에 따른 後續對策 樹立

- 保險市場開放 후속조치로서 消費者權益保護, 보험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의 촉진 및 國內保險產業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한 정책방안의 강구
 - 보험종목별 保險事業 許可 및 設立認可 要件의 차등화 검토
 - 소비자의 보험상품 비교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회사 情報公示制度의 強化
 - Cross-Border 추가허용종목에 대하여 국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效率的인 대응방안 수립
 - 不良 海外保險事業者와의 거래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OECD 회원국 監督機關간 協助體制 강화방안 검토

保險制度의 國際的 調和維持 方案 檢討

- 第3分野保險(傷害·疾病·介護)의 생·손보 相互進出 擴大方案 연구·검토
- 支給餘力制度 및 水準의 국제화 유도

- 보험규제의 客觀性・透明性 제고
- 約款 및 料率體系의 선진화 유도
- 獨立代理店 및 保險브로커制度의 국내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市場開放에 따른 國際競爭力 確保

- 市場原理에 의한 公正競爭 環境하에서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보험회사 經營의 效率性 提高
 - 保險價格自由化에 대응한 자체 효율산출능력의 제고 및 언더라이팅기법의 선진화
 -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事業費節減 및 資産運用收益率 제고
 -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新商品 開發 및 각사별 비교우위상품의 발굴
 - 保險 販賣組織의 효율성 제고 및 교육훈련의 강화
 - 소비자 權益保護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
 - 언더라이팅, 보험계리, 손해사정, 위험관리 등 부문별 專門人 力の 確保 및 育成을 위한 투자확대
- 內國社의 海外進出 관련 규제완화 검토
 - 「保險會社 海外店鋪 管理規程(보험 22330-181)」대폭 緩和
 - 국내보험사의 海外有價證券 및 不動産 投資의 현지화 촉진

保險契約者の 利益向上 圖謀

- 다양한 新種商品의 開發로 고객의 니드에 대응
- 保險民願과 분쟁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재발 방지 노력 및 제도적 장치 보완
- 公示制度의 확대 및 서비스 감시기능 강화로 消費者滿足 경영 정책 수립

캡티브 保險者 設立에 관한 對應方案 樹立

- 국내 대형기업의 自體 캡티브 설립 움직임에 대한 대책 수립
 - 國內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분석
 - 海外의 캡티브 설립실무, 세제비교 및 설립요건 調査
 - 캡티브 설립의 妥當性 검토 및 우리나라의 캡티브 설립전망

2. 生命保險

가. 共通 推進課題

第3段階 價格自由化 推進에 따른 對應方案 樹立

- '97년 4월 豫定危險率 自由化에 따라 위험율 基礎統計 수집을 확대하고, 세분화된 위험률의 산출 및 언더라이팅 업무 지원 방안 수립
- '95년 4월 위험율차 配當自由化에 이어 '97년 4월 이자율차 배당이 자유화될 예정임에 따라 보험회사간 配當競爭의 深化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金利差保障의 이차배당으로의 吸收統合 및 長期維持特別配當의 축소 또는 廢止 검토
 - 예정이율 변화에 따른 보험의 諸價格 伸縮的 조정 필요

標準責任準備金 制度의 研究 檢討

- '97년 예정위험율 자유화에 따라 第3回 經驗生命表 및 기타 위험율에 대한 標準危險率 算出에 관한 연구
- '98년 이후 예정이율 자유화 일정에 따른 評價利率 算出 및 適用方法 研究
- 표준책임준비금과 연계된 각종 準備金 및 配當金 체계 정비

標準 危險職種 分類의 改正

- 危險職種 및 等級分類에 대하여 실적통계를 근거로 合理的인 조정을 통한 標準 위험직종 및 등급분류를 개정
- 계약사정업무(Underwriting)의 科學化 도모 및 계약자간의 衡平性 제고

障害等級分類表 改正 檢討

- 현행 損害保險의 장해 분류기준, 산업재해 분류기준, 맥브라이드 분류기준과 상이한 생명보험의 障害等級分類를 개정
- 科學的인 분류방법 도입으로 민원 발생소지 사전 제거

非課稅家計長期貯蓄 의 效率的 運營

- 中長期 商品과의 균형있는 판매로 만기 도래시 收支差 역조 발생 방지
- 타금융상품권과의 金利競爭 지양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으로 역마진 초래 방지
- 보험자산의 타금융권으로의 離脫防止를 위한 대책마련
- 노후복지연금보험등 기관매상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 철저히 기계약자의 승환계약 방지책 마련
- 同 商品과 같은 金利連動型 短期 貯蓄性商品에 대한 이자율 체

계 개선방안 마련

- 보험고유의 利率 또는 會社債 利率 등의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이자율 체계 검토

資産運用 收益率 増大

- ALM 체계 構築을 통한 과학적이고 伸縮的인 자산운용
- 保險契約者 貸出制度의 폐지에 따른 자산운용수익을 제고방안 모색
- 市場豫測機能 強化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포트폴리오 구축

支給餘力の 擴充 方案

- 支給能力確保를 위한 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監督 필요
- 생보산업의 구조를 보다 堅實하게 하는 방향에서 실질적인 지급능력 확보와 競爭力 향상 정책 검토

維持率, 定着率 提高에 대한 持續的 努力

- 中長期保險의 판매 활성화를 통한 維持率 提高 유도
- 募集手當構造를 신계약 위주에서 유지율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制度的 裝置 마련
- 유지율 향상을 위하여 專門募集人의 제도적 장치 마련

事業費 節減을 통한 構造的 改革方案 研究 必要

- 綜合金融化 進展에 따라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公示制度가 확대시행될 것이므로, 보험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절감 연구 필요
- 支給能力規制 制度의 개선에 따라 支給餘力 確保를 위한 사업비 절감요구 증진
- 크로스보더의 허용등 對内外 開放에 따라 선진외국상품과의 競爭力 確保를 위해 과학적인 손익분석을 통한 상품 개발

나. 種目別 改善課題

1) 生存保險

個人年金保險商品の 競爭力 強化

- 販賣市場의 細分化 및 시장단위별 特化給付의 설계로 타금융권에 비해 경쟁력 있는 개인연금상품의 개발 유도
- 개인연금자산의 區分計理를 통한 계약자보호 및 효율적인 자산 운용 도모

價格競爭力 優位 商品の 開發

- 非課稅家計長期貯蓄制度 및 金融所得綜合課稅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반사망보장을 최소화하고 災害死亡 및 障害保障을 강화하는 상품의 개발

- 價格自由化의 진전에 따라 낮은 보험료, 낮은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의 개발로 타금융권과의 경쟁력 확보 및 保險經營의 健全性 도모
- 실적배당형 金融商品 선호도 증가에 따라 변액보험, 유니버설 보험 등 금리감응형 상품의 도입 추진

教育保險商品の 販賣 活性化

- 교육보험의 수요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傳統的인 教育保險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私教育費 등의 경제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급부의 설계

2) 保障性保險

消費者 니드에 副應하는 商品の 開發

- 主契約은 사망, 保障등 基本保障만 하고, 特約으로 기타 위험을 追加 保障하는 상품 개발
- 소비자의 특성 및 연령에 따라 수요가 다르므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상품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함

保障性保險商品の 販賣擴大

- 長期傷害保險의 생명보험시장 잠식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산출 및 第3分野商品에 대한 개발 및 판매의 활성화
- 기존 보장성상품의 급부확대 및 신상품 개발확대

- 標準未達體保險등 틈새시장 공략 상품의 활성화 및 사회보험 보완상품의 개발로 보험이미지 개선

3) 生死混合保險

保險差益課稅期間의 延長에 따른 中長期商品 販賣의 活性化

- 보험차익 非課稅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현행 단기상품의 주력시장을 점차적으로 중장기로 전환하여 운영
- 維持率 向上 제고 및 내실경영 측면에서의 상품개발 및 판매확대로 경영의 건전성 유도

4) 團體保險

企業年金保險 導入方案 檢討

- 勤勞基準法 개정으로 기업연금제 도입의 근거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연금의 導入方案 마련
- 從業員退職積立保險市場의 개방예상에 따른 대응전략 강구

團體保險市場의 活性化 圖謀

- '97년 危險率 自律化에 따라 각종 단체별로 신위험율을 산출하여 단체소속원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신상품 제공으로 단체보험 시장의 활성화 도모

3. 損害保險

가. 共通 推進課題

4段階 價格自由化 推進 및 自由料率制度의 定立

- '97년 4월1일부터 제2단계 範圍料率 적용종목에 대해 자유요율제를 도입하여 일반손해보험분야의 價格自由化가 최종단계에 접어들게 됨.
- 自由料率制度의 정착을 위한 基盤 構築
 - 유효경쟁을 위한 最適의 競爭環境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함

損保 保險브로커제도 國內導入 對應方案 樹立

- '97년 4월 보험브로커제도 국내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保險募集秩序의 혼란방지 방안 수립
 - 보험브로커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보험사의 料率算出 및 보험관리 서비스가 강조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의 보험요율 산정기술의 향상 방안 수립
- '98년 4월 보험브로커제도의 대외개방에 대한 대응책 사전 마련
 - 미국의 보험브로커제도 조기 도입 및 브로커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對應方案 마련

- 보험브로커에 대한 미국의 관련규정 및 일본의 보험브로커 도입시 등 各國 制度의 檢討, 分析

크로스보더(Cross-border) 許容에 따른 對應方案 수립

- '97년 1월부터 追加許容되는 손해보험종목(선박보험, 해외여행보험, 장기상해보험)에 대해 국내보험시장 대응전략 수립
- 市場開放으로 國內에 營業진출하는 海外保險者에 대한 情報公示制度 구축 및 국내계약자보호방안 마련
- 해외 소재 외국보험사에 대한 감독방안 및 보험감독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擔保能力의 大型化 및 支給餘力制度 擴充

- 原保險會社 및 재보험회사의 擔保力 擴充을 통한 受再能力 確保 및 국내물건의 海外流出 防止
- 현행 보유보험료 비율 規制制度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도입 또는 국제적 수준으로 일치등 검토

保險料率 檢證方法의 科學化

- 범위요율 및 自由料率 체계하에서의 資料集積, 요율검증 및 제시방안 강구

- 경험위험율 및 純保險料法에 의한 危險單位當 價格 산출
- 가격자유화 진전에 따라 正確한 原價를 算定할 수 있도록 事業費 配分基準의 改善 및 電算化 추진
 - 직무분석의 客觀化 및 사업비 배분 기준의 합리성 마련
 - 保險種目別 間接費 配分基準 개선
- 勸告料率體系 轉換에 대한 준비
 - 순율 및 부가율 산출기법의 검토, 예측순율(Prospective Loss Cost) 산출방법 제시
- 보험상품 개발의 Package화 추세에 대비한 검증 및 調整體系 확립
- 장래 요율수준의 正確한 예측에 기초가 되는 과거 경험통계의 적정성 검증 및 修正技法의 개선

個人年金損害保險 販賣에 따른 效率的인 長期資金
運用體制 誘導

- 효율적인 長期資金運用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 유도
- 投資對象別 리스크 헷지 기법의 개발
- 유가증권 투자증대에 따른 市場性 리스크 管理技法 연구유도

契約者에 대한 多樣한 서비스 提供

- 단기적 요율경쟁보다 契約者와의 長期的 信賴關係를 구축하여

시장의 안정과 계약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고객 서비스 개선 유도

- 위험진단, 경영 Portfolio, 손해방지대책 수립등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보험자의 Loss Cost 절감 도모

나. 種目別 改善課題

1) 火災保險

商品體系의 改善

- 요금구조의 先進化 및 요금체계의 單純化
 - 기업형 물건의 개별요금산출, 현행 등지체계의 縮小 또는 폐지방안을 검토
- 요금자유화에 따른 標準料率, 標準約款의 운용
 - 상품의 종합담보화 추세를 감안 약관 및 요율을 擔保危險別로 종합화, 체계화함

2) 海上保險

料率體系의 科學化를 통한 競爭力 強化

- 積荷保險의 위험변수별 요금차 조정 및 요금결정 모형의 개선

- 船舶保險의 전손·분손 결정모형에 관한 표준요율의 제공

積荷保險 EDI 서비스의 擴大

- 保險事業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하여 EDI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할인제 도입 검토

3) 自動車保險

無事故割引·割増制度의 改善

- 현행 점수제 割引割増制度는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평균 할인할증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보험료 減少效果를 나타나게 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할인할증제도를 統計的 方法에 의하여 분석,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하되, 보험가입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公聽會 등의 사전작업등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적용체계의 재정립 필요

自動車保險의 價格自律化 方案 檢討

- '97年 8月에는 2단계 價格自律化가 시행된지 2年이 되는 시점
이므로 範圍料率의 完全自律化 등에 대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함.

- '96年 8월에 시행된 基本保險料 範圍料率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와 이와 수반하여 향후 基本保險料의 完全自律化 方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對物賠償 加入強制化 方案 檢討

- 행정쇄신위원회('95.2)의 기획연구과제인 “교통사고처리체계 및 제도의 개선방안”중 물적사고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범위의 확대 논의중 자동차보험 강제가입부분의 범위에 일정수준 이상의 대물배상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규정을 폐지하여 모든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범죄로 보지 아니하는 방안이 확정됨.
- 따라서 대물배상 강제 가입화 방안과 이에따른 효과 및 강제가 입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책 연구검토

醫療費 支給制度 및 後遺障害制度의 改善

-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료보수의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추진
- 손보업계 의견으로 의료보수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추진
- 의료비 지급 적정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 의료비분석시스템(MEPAS)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
- 자동차보험 의료비와 관련한 모든 정보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 부정확한 後遺障害 진단서 발급의사의 관리체계 구축 및 노동 능력상실율의 새로운 판정기준 확립추진

自動車 修理費 支給關聯制度의 改善

- 정비수가 체계 개선을 위한 수리기술연구 추진
 - 과학적인 標準作業時間 책정을 통한 정비수가체계 개선으로 수리비 지급의 적정화, 경감화 도모
 -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의 표준화로 합리적인 판금 및 도장요금 算定基準 마련
- 수리비지급 적정화를 위한 화상견적시스템 개발
 - 정확한 損害査定으로 수리비 지급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초급자도 쉽게 견적을 작성할 수 있는 화상견적 시스템 개발
 - 수리비 과잉 및 중복 청구를 방지하여 수리비 지급의 正確性을 도모하기 위한 부품가격 조회시스템 개발

自動車 修理性, 損傷性 向上 및 部品再活用 誘導

- 차량별 수리성·손상성 연구

- 충돌시험, 차량구조조사 등을 통하여 차량별 수리성, 손상성을 비교평가하고 자동차구조 및 부품보급형태 개선을 자동차 제작사에 제언
- 수리성·손상성 향상을 위한 자동차 제작사와의 공동연구
- 플라스틱, 알루미늄등 자동차 신소재에 대한 수리기법 개발 및 부품 재활용 유도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제고

4) 特種保險

賠償責任保險 報償限度額의 調整

- 현행 협정요율은 1인당 1억/1사고당 10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배상책임금액의 고액화 추세를 반영하여 보상한도액을 인상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勤災保險 料率適用體系의 合理化

- 보상한도액(1인당 100만원/1사고당 300만원)인상계수의 현실화 방안 검토
- E/L의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는 소득수준 및 법의식의 향상 등 사회환경 변화, 법원판결금액의 고액화 추세 및 기업의 근로자 재해에 대한 보장수요 등의 증가로 계약자의 보상한도액 인상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국내근재보험 건설업종의 요율분류체계 개선
 - 국내근재의 경우 건설업종의 분류가 일반건설외 3종으로 단순화 되어 있어 향후 위험단위별 요율적용을 위해 건설업종의 위험분류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賠償責任保險 需要増大에 따른 對應方案 樹立

- 製造物責任法の 立法化 推進과 관련한 對應方案 수립
 - 被害救済 確保方案으로서의 보험제도 명문규정화
 - 생산물배상責任保險제도의 活性化 方案 수립
-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개발을 추진.
- 環境, 鐵道 및 專門職賠償責任保險制度의 도입

가스보험등 義務保險의 保險加入率 提高方案 講究

- 현행 법령상의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스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율이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들 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
 - 주요국의 보험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요율체계개선 및 가입율 제고방안 검토

公的 社會保險의 補完商品의 開發促進

- 의료보험에서 부담보영역의 보완상품으로서 본인부담, 非協定給與 등의 의료비보장 건강보험 개발 유도

國內料率 適用物件의 保險加入金額 擴大

-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 건설보험공사와 최근 대형사고 빈발 등으로 賠償責任保險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요율 적용가능 보험가입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賠償責任保險의 국내요율 적용한도는 1인당/ 1사고당 1억원, 10억원이며, 技術保險의 경우 기관기계보험 20억원, 조립 및 건설공사보험은 120억원임.

5) 長期損害保險

豫定危險率의 價格自由化 推進 및 標準危險率 制度의 定立

- '97년 4월1일부터 예정위험율의 자유화가 시행되므로 3개년 (FY'93~FY'95)간의 기초통계자료 집적·분석을 통하여 실적에 따라 현행 위험율의 수준을 조정할 표준위험율 제시
- 표준위험율 제도 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유효경쟁 및 보험계약자 보호 유도

介護危険 등 새로운 擔保危險의 商品開發

- 기존 長期損害保險의 판매영역 확대를 위한 介護危險, 질병관련 의료비용 보상보험 및 건강보험 등의 개발
- 복잡 다기화하는 사회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신위험을 개발

契約者配當制度 導入 檢討

-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의 자유화 추이 및 장기손해보험의 특성(사전적 가격인 요율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사후적 가격인 계약자 배당제도의 시행기반 마련
- 계약자배당제도의 시행은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임

VI. 附錄：保險產業의 主要展望值

1. 保險產業 主要指標

項 目		FY'96	FY'97
收入保險料(억원, 성장율)			
- 生命保險		414,115(17.4%)	479,195(15.7%)
- 損害保險		136,349(26.9%)	163,198(19.7%)
- 全體		550,464(19.6%)	642,393(16.7%)
保險寄與度(%)			
- 生命保險		11.15	12.15
- 損害保險		3.67	4.14
- 全體		14.82	16.29
1人當保險料(원)	經常價格		
	- 生命保險	915,212	1,049,889
	- 損害保險	301,337	357,561
	- 全體	1,216,549	1,407,460
	'90년 不變價格		
	- 生命保險	637,778	700,400
	- 損害保險	209,990	238,533
	- 全體	847,768	938,933
生損保 構成比(%)		75.2 : 24.8	74.6 : 25.4
總資產(억원)			
- 生命保險		832,868(19.5%)	991,155(19.0%)
- 損害保險		150,465(18.4%)	185,586(23.3%)
- 전체		983,333(19.3%)	1,176,741(19.7%)
營業效率(%)			
- 生命保險 保險金支給率		64.5	64.3
- 損害保險 損害率		78.8	75.5

2. 生命保險

區 分			個人保險				團體保險	合計		
			生 存	死 亡	生死混合	計				
保 險 料	FY	'96	202,673	49,456	74,306	326,435	87,680	414,115		
		'97	226,556	75,576	82,278	384,410	94,785	479,195		
	CY	'96	197,630	44,595	62,377	304,602	87,300	391,902		
		'97	221,170	67,947	82,904	372,021	93,300	465,321		
總 支 給 保 險 金	保 險 金	FY	'96	4,747	3,212	11,706	19,665	35,631	55,296	
			'97	5,692	4,496	12,625	22,812	42,476	65,288	
	CY		'96	4,582	2,953	11,695	19,230	33,897	53,127	
			'97	5,448	4,137	12,676	22,261	40,719	62,980	
	還 給 金	FY	'96	133,760	6,002	23,822	163,584	42,115	205,699	
			'97	145,768	9,004	27,392	182,164	53,723	235,887	
	CY		'96	130,683	5,458	23,044	159,185	36,981	196,166	
			'97	142,243	8,137	25,767	176,147	51,545	227,692	
	配 當 金	FY	'96	2,347	493	544	3,384	2,907	6,291	
			'97	2,473	719	723	3,915	3,196	7,111	
	CY		'96	2,299	447	556	3,302	2,538	5,840	
			'97	2,405	656	703	3,764	3,289	7,593	
	金 計	FY	'96	140,854	9,707	36,072	186,633	80,653	267,286	
			'97	153,933	14,219	40,739	208,891	99,395	308,286	
		CY		'96	137,564	8,858	35,295	181,717	73,416	255,133
				'97	150,096	12,930	39,146	202,172	95,553	298,265
事 業 費			新契約費			維持費	收金費	合計		
	FY		'96	51,886			19,752	4,774	76,412	
			'97	62,159			23,594	5,458	91,211	
	CY		'96	49,570			18,850	4,603	73,023	
			'97	59,419			22,598	5,287	87,304	

3. 損害保險

保險種目	年度 區分	'96			'97		
		保險料	増加率	構成比	保險料	増加率	構成比
火災保險	FY	4,090	10.0	3.0	4,711	15.2	2.9
	CY	3,901	5.2	3.0	4,588	17.6	2.9
海上保險	FY	4,656	3.4	3.4	5,048	8.4	3.1
	CY	4,600	-0.8	3.6	4,962	7.9	3.2
自動車保險	FY	61,246	25.3	44.9	69,991	14.3	42.9
	CY	58,457	27.4	45.3	67,905	16.2	43.4
保證保險	FY	6,791	2.9	5.0	8,135	19.8	5.0
	CY	6,676	3.9	5.2	7,752	16.1	5.0
技術保險	FY	1,621	57.1	1.2	2,046	26.2	1.3
	CY	1,472	59.0	1.1	1,942	31.9	1.2
賠償責任保險	FY	1,970	10.0	1.4	2,218	12.6	1.4
	CY	1,895	8.1	1.5	2,150	13.5	1.4
傷害保險	FY	593	18.1	0.4	691	16.5	0.4
	CY	562	9.1	0.4	656	16.7	0.4
綜合保險	FY	2,787	35.4	2.0	3,380	21.3	2.1
	CY	2,555	30.5	2.0	3,190	24.9	2.0
其他特種保險	FY	662	17.6	0.5	767	15.9	0.5
	CY	626	4.3	0.5	722	15.3	0.5
長期保險	FY	51,933	37.6	38.1	66,211	27.5	40.6
	CY	48,389	39.8	37.5	62,641	29.5	40.0
全體種目	FY	136,349	26.9	100.0	163,198	19.7	100.0
	CY	129,133	27.8	100.0	156,508	21.2	100.0